

myFord

2018 APRIL VOL. 11

THE DELIGHTFUL DAY

세련된 도시 남성의 취향과 개성은 자동차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2018 뉴 머스탱 5.0 GT는 비즈니스, 레저, 휴식 등 모든 일상의
든든한 동반자다. 스티어링 휠을 잡는 순간 일상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Go Further



HAMILTON

AMERICAN SPIRIT ■ SWISS PRECISION



KHAKI PILOT DAY DATE
AUTOMATIC SWISS MADE

100 YEARS OF
TIMING THE SKIES
★

MONO STORE 롯데백화점 중동점 갤러리아백화점 대전점 수원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경기점 광주점 김해점 센텀시티점 영등포점 의정부점 인천점 충청점 하남점
AK플라자 구로본점 분당점 수원점 원주점 평택점 현대백화점 대구점 동구점 디큐브시티점 목동점 미아점 신촌점 울산점 중동점 천호점 충청점 김해점 판교점
롯데백화점 광복점 구리점 노원점 대전점 동래점 본점 부산점 센텀시티점 스타시티점 영등포점 인천점 청량리점 평촌점 DONGWHA DFS DOOTA DFS
LOTTE DFS MAIN COEX WORLDTOWER BUSAN JEJU SHILLA DFS SEOUL HDC SHINSEGAE DFS MAIN INCHEON AIRPORT CENTUMCITY HANWHA GALLERIA DFS 63

INTRO

2018 NEW MUSTANG

THE MOST INNOVATIVE CHANGE EVER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뒤흔들 진보한 기술력과 퍼포먼스, 개인 맞춤형 설정
기능으로 2018 뉴 머스탱이 재탄생했다. 순수한 열정을 지닌 자유분방함으로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며 강한 개성을 드러내는 2018 뉴 머스탱의 자신감
넘치는 질주가 시작됐다.



변화의 시대에 우뚝 서다, 2018 포드코리아!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새해를 뜨겁게 달군 평창 동계 올림픽도 성황리에 마무리되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한파도 봄비와 봄바람에 어느새 자취를 감춥니다. 세상을 조금씩 물들이는 초록의 기세가 더해가는 이때, 새해부터 쉼 없이 달려온 시간을 잠깐 멈추고 한 템포 쉬어가는 것은 어떨는지요?

지난해, 포드코리아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 결과 3년 연속 1만 대 판매를 달성했으며, 포드 익스플로러는 당당히 2017 수입 SUV 판매 1위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이제 익스플로러는 명실공히 대형 SUV 강자를 넘어 SUV 시장의 절대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 모든 성과를 이루게 된 원동력은 고객님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18년 황금개띠 해에도 열심히, 그리고 욕심 있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무엇보다 2018년에는 포드를 더욱 포드답게 만들어줄 포드자동차의 아이콘 2018 뉴 머스탱이 더욱 강력해지고, 더욱 매력적인 모습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2018 뉴 머스탱과 함께 가슴 뛰는 드라이빙 경험을 해보실 것을 제안합니다.

자동차 시장의 변화와, 그 변화의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변화무쌍한 환경에서도 포드코리아는 신념을 가지고 변화 속에 내재된 가치의 실현을 위해 묵묵히 전진하고자 합니다. 그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객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고객 여러분과 가족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대표이사 사장 정재희

myFord

2018 APRIL VOL. 11

04 INTRO

2018 NEW MUSTANG, THE MOST INNOVATIVE CHANGE EVER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뒤흔들 진보한 기술력과 퍼포먼스, 개인 맞춤형 설정 기능으로 2018 뉴 머스탱이 재탄생했다.

06 CEO MESSAGE

변화의 시대에 우뚝 서다, 2018 포드코리아!

SPECIAL THEME

08 RUN WITH THE FORD

THE DELIGHTFUL DAY

2018 뉴 머스탱 5.0 GT는 세련된 도시 남성의 든든한 동반자다.

20 GUIDE

2018 NEW MUSTANG 30 THINGS

2018 뉴 머스탱에 대해 꼭 알아야 할 30가지를 뽑았다.

24 PLACE

JUST FOR ME

소중한 나를 위한 개인 맞춤 서비스 공간을 소개한다.

30 TASTY

THE MOST PERSONAL RESTAURANT

나만을 위해 준비된 특별한 테이블이 기다리는 레스토랑을 만난다.

34 ABROAD

CALIFORNIA DREAMING

개인의 취향에 맞게 휴식과 액티비티를 선택할 수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로 떠나는 여행

PLAY WITH FORD

40 NEW FORD LIFE

CITY REFORMER

포드가 이끌어갈 미래 도시에 대해 알아본다.

46 GLOBAL FORD

GENUINE PERFORMANCE

포드의 고성능 모델을 한자리에서 만난다.

52 FOCUS 1

TIME CONNECTOR

오랜 전통이 현재로 이어지고, 과거의 영광이 현재에 재현된 모델을 살펴본다.

56 FOCUS 2

HUMANISM FIRST

사람을 위한 포드의 자동차 기술 개발과 연구는 끝없이 이어진다.

60 SOCIETY

TO BE WITH YOU

포드는 지속성과 진정성으로 지역사회와 문화를 지키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62 ISSUE 1

LAST AUCTION HERO

자동차 경매를 통해 포드의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알아본다.

64 ISSUE 2

ONLY ONE PONY

머스탱 포니 엠블럼에 개성을 불어넣어 나만의 포니 아이템을 완성할 수 있다.

65 INFO

THE TRUE SERVICE

'2018 포드 아카데미' 소식과 함께 포드의 서비스 테크니션이 전하는 불철 차량 관리법

LIFE STYLE

66 PEOPLE

BETWEEN MACHO AND GENTLE

머스탱 오너 한석준 아나운서와의 인터뷰

70 STYLE

NEW STUFF

혁신적 기술력을 탑재한 디지털 신제품을 소개한다.

74 LEPORTS

두 바퀴로 깨우는 질주 본능, 모터사이클 웅장한 배기음과 바람을 가르는 스피드가 매력적인 모터사이클 입문법

77 DEALER NEWS

포드의 딜러사 주요 뉴스

78 FORD NEWS

포드에서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뉴스

80 FORD LINEUP

포드 전 차종 제원 정보

82 FORD NETWORK

전국 포드 전시장 네트워크

발행일 2018년 4월 발행처 포드코리아 마케팅팀 서울 강남구 삼성동 144-17 골든타워 18층
기획·편집 (주)엠큐브파트너스 02-548-1601 디자인 (주)128프로젝트 02-2051-1050 인쇄 (주)미래엔 02-3475-3837
(myFord)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사용을 금합니다.

*매거진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조용이며 실제 판매 모델과 다를 수 있습니다.

THE DELIGHTFUL DAY

세련된 도시 남성의 취향과 개성은 자동차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2018 뉴 머스탱 5.0 GT는 비즈니스, 레저, 휴식 등 모든 일상의 든든한 동반자다. 스티어링 휠을 잡는 순간 일상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EDITOR 김민정
DRIVING WRITER 임유신(«evo» 편집장)
PHOTOGRAPHER 류창렬
MODEL 박종수
STYLING 이서연
HAIR & MAKEUP 주만구



블루 핀스트라이프 스리피스 슈트와 화이트 셔츠 모두 맨온더분
브라운 브리프케이스 에스.티. 듀퐁 파리
시계 페라가모 타임피스 by 갤러리 어클락



체크 블레이저, 베스트, 니트 셔츠, 데님 팬츠 모두 맨온더분
블루 로퍼 어그
스카프 라르디니 by 신세계인터네셔널



블루 핀스트라이프 스리피스 슈트와 화이트 셔츠 모두 맨온더분
시계 페라가모 타임피스 by 갤러리 어클락

“레트로 감성과 미래적 감성을 동시에 품은 2018 뉴 머스탱 5.0 GT는 현대적인 빌딩은 물론 고풍스러운 건물이 즐비한 도로 어디서든 잘 어울린다. 단조로운 도심 출근길에 신선하고 짜릿한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른 아침, 슈트를 차려입은 비즈니스맨의 멋스러움이 돋보인다. 체형에 잘 맞게 재단한 테일러링 슈트처럼 자동차도 취향과 개성을 반영하는 또 다른 수단이 된다. 2018 뉴 머스탱 5.0 GT는 스포츠 쿠페다. 긴 보닛과 짧은 트렁크 리드가 정통 쿠페의 비율을 잘 따른다. 2018 뉴 머스탱은 부분 변경을 거치면서 헤드램프와 안개등, 테일램프 등을 다듬어 더욱 매끈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풍긴다. 헤드램프는 LED 방식이라 머스탱의 프론트에 더욱 선명한 이미지를 더한다. 11개에 달하는 익스테리어 컬러, 두 개의 휠 디자인 등 자신의 취향과 개성에 맞는 머스탱을 만들 수 있다. 패션을 아는 사람과 패션을 입힌 자동차의 만남이다.

도심에서의 출근길은 만만치 않다. 복잡한 차와 느릿느릿한 흐름을 이겨내야 한다. 2018 뉴 머스탱과 함께라면 지루함도 즐거움이 된다. 몸에 맞춘 듯한 시트와 노멀 모드의 편안한 승차감 덕분에 스포츠카지만 아늑하다. 일반 주행 때는 편안하고, 스포츠 주행 때는 역동성을 극대화하는 데일리 스포츠카 공식을 철저히 따른다. 실내는 더욱 스마트해졌다. 포드의 고유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싱크3(SYNC[®]3)는 모바일 연결성이 우수하다. 직관적이고 잘 짜인 구성과 터치 방식을 적용해 사용이 편리하고, 음성인식과 애플 카플레이 등도 포함한다. 안전이 보장된 상황에서 간단한 업무 정도는 충실히 해낼 수 있다.



네온 그린 파케 셔츠, 후드 집업, 쇼츠, 아대 모두 아디다스 테니스
보스턴백 투미



그린 스웨이드 재킷, 데님 팬츠 모두 맨온더본
화이트 패턴 셔츠 에스.티. 듀폰 클래식
블랙 백팩 에스.티. 듀폰 파리
화이트 스니커즈 프레드페리
선글라스 에드하디 아이웨어
시계 페라가모 타임피스 by 갤러리 어클락

“스포츠카의 매력은 단연 스포티함이다. 아메리칸 포니의 순수한
혈통을 지닌 2018 뉴 머스탱 5.0 GT는 다이내믹한 삶을 지향하는
스포츠맨의 강인한 열정과 우아한 품격을 실현한다.”

스포츠카와 남자의 공통점은 바로 역동성이다. 남자라면 스포츠 하나 정도는 능숙해야 한다. 과격하고 거칠게 움직이며 열
정적으로 스포츠에 매진하는 순간 남자의 가장 멋진 모습이 드러난다. 2018 뉴 머스탱 5.0 GT의 근육질 차체는 스포츠맨의
다부진 보디와 통하는 면이 있다. 근육질임과 동시에 매끈한 머스탱 5.0 GT의 라인은 운동 결과로 얻은 남자의 유연한 속성
과 맞아떨어진다. 맨손운동이 아닌 이상 스포츠는 도구를 동반한다. 2018 뉴 머스탱 5.0 GT와 함께라면 걱정할 필요 없다.
뒤를 날렵하게 다듬은 쿠페 스타일이지만 트렁크 용량은 382L에 이른다. 간단한 짐이라면 뒷좌석에 훌쩍 던져 넣어도 된다.
비교적 큰 짐이라면 뒷좌석을 접으면 된다.



“최고출력 446마력, 최대토크 54.1 kg·m를 내뿜는 첨단 5.0L V8 엔진이 심장을 울리는 배기음과 함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폭발적 역동성을 발휘한다.”



2018 뉴 머스탱 5.0 GT의 움직임은 스포츠 그 자체다. 드래그스트립 모드는 직선로에서 가속을 빨리하도록 하는 기능이다. 단거리 육상선수가 빠른 스타트로 기록을 단축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이라고 보면 된다. 전자식 라인록은 타이어를 워밍업하는 기능인데, 제자리에서 앞바퀴에 제동을 걸고 뒷바퀴를 돌려 연기를 낸다. 번아웃 효과를 시각적으로 즐기고, 서킷 레이스에서 빠른 출발을 돕는다. 2018 뉴 머스탱 5.0 GT는 스포츠 쿠페답게 리어 스포일러를 달았다. 머스탱은 뒷바퀴굴림이라 기본적인 역동성이 출중하다. 마그네라이드 댐핑 시스템은 1초에 1000번에 이르는 속도로 지면 상태를 파악해 댐퍼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한다. 코너에서 뒷바퀴굴림 고유의 스릴과 하체의 안정성이 조화를 이뤄 명확한 움직임으로 경쾌하게 코너를 빠져나간다. 운동선수의 빠르고 균형 잡힌 움직임을 보는 듯하다. 리어 스포일러는 공력 성능을 키워 주행 안정성을 높이는 장치다. 마치 1초라도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적용한 운동선수의 장비 같다.



화이트 더블 버튼 니트 카디건, 팬츠 모두 라르디니 by 신세계인터네셔널

“콰이어트 스타트(Quiet Start)로 배기음을 최소화해 도심 속 좁은 길도 마음껏 달릴 수 있다. 일상의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머신이다.”



체크 블레이저, 니트 셔츠, 데님 팬츠 모두 맨온더본

업무와 스포츠, 그 이후는 여유로운 휴식이다. 감성을 충전하는 시간. 매력적인 스포츠카를 타고 달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부풀어 오른다. 2018 뉴 머스탱 5.0 GT를 타고 있노라면 감성은 배가된다. 12인치 풀 컬러 계기반은 주행 모드에 따라 테마가 세 가지로 변하고 게이지를 취향에 맞게 조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색상을 취향에 맞게 30개 중 바꿀 수 있고, 자신만의 색을 만들어도 된다. 실내를 은은하게 비추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분위기에 맞게 색을 바꿀 수 있다. 머스탱의 실내도 근사한 카페 못지않은 휴식 공간이다. 휴식을 찾아가는 길이 곧 휴식인 셈이다. 스포츠 쿠페 2018 뉴 머스탱 5.0 GT는 그저 역동적인 드라이빙을 즐기는 도구 역할만 하지 않는다. 자동차의 본질은 무엇인가? 속도와 역동성은 기본이고 이동성과 편의성, 실용성과 경제성까지 만족시켜야 한다. 더불어 바라볼 때 눈길을 거둘 수 없는 심미성과 한번 빠져들면 헤어날 수 없는 흡인력, 누가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통성을 갖춰야 한다. 함께 할 때 즐거워야 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낭만도 품어야 한다. 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차가 바로 2018 뉴 머스탱 5.0 GT다.



“2018 뉴 머스탱 5.0 GT와 함께 하루를 마무리한다. 어두운 밤일지라도 머스탱의 카리스마는 감추어지지 않는다. 넘치는 카리스마로 거리의 시선을 모으며 평범하지 않지만, 일상에서도 마음껏 자유롭게 편하게 탈 수 있는 데일리 카로 손색없다. 이 모든 일상의 즐거움은 2018 뉴 머스탱 5.0 GT이기에 가능하다.”

어둠이 내린 저녁은 낭만 속에 감성을 충전하는 시간이다. 하루의 마무리를 평온을 되찾는 과정이다. 복잡한 하루를 정리하기 위해 머릿속을 비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가장 좋은 방법은 짜릿한 질주다. 한적한 도로를 빠르게 달리며 하루 동안 쌓인 고민과 번뇌의 잔재를 바람에 날려 보낸다. 2018 뉴 머스탱 5.0 GT의 5.0L V8 엔진은 446마력에 달하는 강한 최고출력과 54.1kg·m에 이르는 최대토크를 내뿜는다. 더군다나 요즘에는 귀히디귀한 자연 흡기 엔진이다. 2.3L 에코부스트가 자연흡기 터보 트렌드에 대응한다면 V8은 정통 스포츠카의 기본기를 고수한다. 거침없이 매끈하게 치솟는 엔진 회전수와 막힘없이 강렬한 사운드가 일품이다. 밟는 즉시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원하는 대로 속도를 올리는 가속성에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간다. 단수가 무려 10단에 이르는 자동변속기는 2018 뉴 머스탱 5.0 GT의 강한 힘을 효과적으로 조절한다. 스포츠 쿠페답게 굴림 방식은 뒷바퀴굴림이다. 자연흡기 V8과 뒷바퀴굴림의 조합으로 원초적 역동성을 극대화한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COOPERATION
ADIDAS TENNIS(080-022-7981)
ED HARDY EYEWEAR(02-3016-8117)
FERRAGAMO TIMEPIECE BY GALLERY O’CLOCK(02-3284-1300)
FREDPERRY(02-742-4628)
LARDINI BY SHINSEGAE INTERNATIONAL(02-3479-1622)
MAN ON THE BOON(02-1644-4490)
S.T. DOUPONT PARIS · S.T. CLASSIC(02-2106-3496)
TUMI(02-539-8160)

2018 NEW MUSTANG

3 THINGS

워낙 유명하고 잘 알려진 머스탱이지만 알고 타면 더 재미있고 짜릿하다.
2018 뉴 머스탱에 대해 꼭 알아야 할 3가지를 뽑았다.

WRITER 지현성(자동차 칼럼니스트)

머스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1964년에 선보였으니 역사만 55년째 이어왔고, 전 세계 판매량도 1000만 대를 육박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스포츠카 자리에 해마다 오를 정도로 인기도 많다. 머스탱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멋진 차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른다. 멋진 스타일 외에도 머스탱은 매력적인 요소를 가득 담고 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머스탱의 진가가 드러난다. 속속들이 알고 타면 머스탱은 더 재미있고 짜릿한 스포츠카로 다가온다.

1. 쿠페 스포츠카의 기본이 되는 형태다. 2018 뉴 머스탱은 보닛은 길고 트렁크는 짧은 스포츠 쿠페의 황금 비율을 잘 따른다. 강인한 스타일과 매끈하게 뻗어 내려가는 쿠페 라인이 조화를 이룬다.

2. 컨버터블 강력한 성능과 오픈 에어링이 조화롭다. 근육질 보디에 소프트톱을 얹어 분위기가 색다르다. 리어 윈도를 포함하는 톱은 단열 처리를 위해 안감을 덧댔다. 전동식으로 빠르게 여닫힌다. 소프트톱이 차지하는 공간을 최소화해 동급 중 가장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했다.

3. 프런트 디자인 헤드램프와 안개등, 범퍼 디자인을 새로 해 역동적이면서 세련된 감성을 살렸다. 후드와 그릴을 낮춰 스포츠카다운 안정적이고 역동적인 자세를 완성했다.

4. 리어 디자인 테일램프 형상, 범퍼 모양, 듀얼 배기구 디자인을 손봤다. 머스탱의 고유한 전통은 유지하면서 정제되고 세련된 감각을 강조했다. 퍼포먼스 리어윙은 시각적인 역동성과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시킨다.

5. 인테리어 디자인 마이컬러를 포함한 앰비언트 조명, 조명 기능을 포함한 도어 스커트 플레이트, 열선 및 통풍 시트 등 감성과 편안함을 아우르는 요소를 잘 조합했다. 프리미엄 플러스 패키지에는 센터콘솔 리드 핸드 스티치, 니 볼스터, 변속 레버 부츠, 새로운 스타일 쇼스타퍼 레드&미드나잇-블루 컬러 가죽 트림을 포함한 시트 재질을 적용했다.

6. LED 램프 헤드램프, 방향지시등, 안개등 등 각종 램프에 LED를 적용했다. 야간 시인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디자인적으로도 세련된 이미지를 풍긴다.

7. 후드 벤트 후드에 뚫어놓은 벤트는 시각적으로 스포츠 카다운 고성능을 암시하고, 공기 통로로서 기능까지 수행한다.

8. 11 컬러 스포츠카는 강렬한 컬러가 생명이다. 개성이 강한 스타일에는 화려한 컬러가 잘 어울린다. 2018 뉴 머스탱은 11개 외장 컬러를 준비해 개성과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다.

9. 12인치 디지털 계기반 머스탱 최초로 계기반을 컬러 LCD로 채웠다. 스티어링 휠에 달린 포니 버튼을 누르면 세 가지 버추얼 게이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클러스터 디자인은 원형, 리본형으로 나뉘고 게이지 개수도 정할 수 있다.

10. 마이컬러 계기반과 각종 게이지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 메인 컬러와 서브 컬러를 30가지 색으로 조합해 자신의 취향에 맞게 설정할 수 있다.

11. 펄싱 스타트 버튼 스포츠카라면 달리기 전부터 심장 이 떨리는 감흥을 전달해야 한다. 스타트 버튼은 도어가 잠긴 후 엔진 시동이 걸릴 때까지 붉게 빛난다.

12. 머스탱 트랙 앱 뒷타이어에 연기가 피어오르는 라인록 생중계, 3개 트랙 평균 속도를 기록할 수 있는 랩 타이머, 400m 드래그 속도 측정, 드래그 카운트다운과 횡가 속도 측정 등 머스탱을 트랙에서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있도록 각종 기능을 제공한다.

13. 마이모드 2018 머스탱의 콘셉트는 개인화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세부적 기능을 제공한다. 마이모드도 그중 하나로 서스펜션과 스티어링, 배기음 등을 운전자 취향에 맞게 조절해 저장해놓을 수 있다.

14. 싱크3 간편한 터치와 음성인식으로 전화 통화나 음악 감상 등을 즐길 수 있다. 센터페시아 모니터는 터치로 제어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을 담았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핸즈프리 통화 등을 지원한다.

15. USB & 블루투스 스마트 충전 USB 포트 2개와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하면 거의 모든 미디어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다. 음악, 오디오북, 팟캐스트 등을 핸즈프리로 감상할 수 있다. 검색, 선택, 재생, 음악 변경 모두 핸즈프리로 조작할 수 있어 편리하다.

16. 2.3L 에코부스트 2.3L 배기량에 터보를 더해 291마력과 44.9kg·m에 이르는 강한 힘을 낸다. 중저속 회전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토크 덕에 언제나 여유로운 가속을 경험할 수 있다.

17. 5.0L V8 5.0L V8 엔진은 446마력, 54.1kg·m에 이르는 강한 힘을 낸다. 저압 포트 연료 직분사와 고압 직분사로 구성된 새로운 듀얼 인젝션 시스템을 사용해 출력을 높였다. 0~100km/h 가속을 4초 이내로 끝내는 막강한 성능을 발휘한다.

18. 셀렉트 시프트 10단 자동변속기 변속기 다단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현재 가장 많은 단수는 10단. 아직은 보급 단계라 극히 일부 자동차만 채택한다. 변속 속도도 빠르고 저속에서 변속 응답성을 향상시켜 동력 전달 효율성을 높이고 역동적 주행을 돕는다.

19. 새로운 쇼크업소버와 스태빌라이저 하체를 새롭게 손봐 역동성과 주행 안정성을 높였다. 쇼크업소버와 스태빌라이저는 새롭게 교체해 응답성과 조종성을 향상시켰다.

20. 마그네라이드 댐핑 시스템 도로 조건에 따라 실시간으로 댐퍼를 최적의 상태로 조절한다. 자기장을 이용한 방식으로 유압식보다 섬세하고 빠르게 댐퍼를 조절한다. 1초에 1000회에 이르는 빠른 작동으로 도로 상태 변화에 순간적으로 대처한다.

21. 셀렉터블 드라이브 모드 요즘 스포츠카는 다재다능해야 한다. 획일적인 역동성보다는 상황에 맞는 주행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머스탱은 노멀, 스포츠 플러스, 트랙,

드래그 스트립, 스노/웨트 등 다양한 주행 모드를 갖췄다. 파워트레인과 새시 캘리브레이션이 각 모드에 따라 바뀌어 도로 환경과 운전자 의도에 맞는 최적의 주행 상태를 유지한다.

22. 액티브 밸브 퍼포먼스 배기 시스템 쿼드립 듀얼 배기구에 적용해 운전자가 직접 밸브를 열거나 잠글 수 있다. 시프트레버 옆 버튼을 조절해 취향에 맞게 배기 사운드를 조절할 수 있다.

23. 콰이어트 스타트 스포츠카라면 질주 본능을 자극하는 강렬한 배기음은 필수지만, 때로는 조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주차장에서 새벽에 출발할 때 등 소리를 크게 내지 말아야 할 때는 배기음을 최소화할 수 있다.

24. GT 퍼포먼스 패키지 좀 더 강한 머스탱을 원한다면 GT 퍼포먼스 패키지를 고르면 된다. 19인치 에보니 블랙 페인티드 알루미늄 휠,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4 타이어, 토센 디퍼렌셜 기어, K브레이크, 프런트 6 피스톤 캘리퍼를 적용한 브렘보 브레이크, 게이지 패키지, 고강도 스프링 및 업그레이드한 리어 스웨이바, 퍼포먼스 리어윙 등 성능 향상을 위한 아이템으로 구성했다.

25. 전자식 라인록 출발하기에 앞서 그림 확보를 위해 타이어를 워밍업하는 기능이다. 제자리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운전의 재미를 더한다. 계기반 화면을 통해 휠 쪽에서 연기가 나는 모습을 생중계하는 기능도 갖췄다.

26.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스포츠카도 평상시에는 편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어야 한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활성화하면 미리 설정한 값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앞차와 안전 간격을 유지한다.

27. 충돌 경고 시스템(보행자 감지 기능 포함) 주변 자동차나 보행자와 충돌 위험을 감지하면 시각 및 청각 경고로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린다. 충돌이 예상되면 자동으로 긴급 제동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28.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차선 이탈을 감지하면 스티어링 휠 진동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스티어링 휠에 토크를 가해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도록 한다.

29. 사각지대 경보(후측방 경보 시스템 포함) 주행 중 사각지대에 자동차가 지나가면 경고한다. 후진 중 측면에서 자동차가 접근하면 위험을 알린다.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빠져나올 때 유용하다.

30. 후방 카메라 후진할 때 후방 상황을 디스플레이에 보여준다. 주차할 때나 후진할 때 주변 장애물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PLACE

PRIVATE & AWESOME PLACE JUST FOR ME

나만을 위한 서비스 공간은 내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사소한 부분까지도 특별해지는 마법,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EDITOR 김은성 PHOTOGRAPHER 김권석(내일투어 사진)



내게 맞는 커피를 내가 원하는 곳에서, 커피해피

매일 한 잔 이상은 꼭 마시게 되는 커피. 취향에 맞는 커피를 찾아 직접 원두를 갈아 마시는 사람도 늘고 있다. 그런 이들에게 각광받는 곳이 바로 커피해피다. 커피협회에서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한 '스페셜티 커피' 제조 1세대인 양철안 로스터가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판매한다. 회원 가입 후 첫 구매 시 3종의 커피를 시음할 수 있고, 정기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로스터 선정 가장 신선한 스페셜티 원두를 원하는 곳에서 받아볼 수 있다.

어떤 원두가 내게 맞을지 궁금하다면 직접 방문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분당에 위치한 커피해피 오프라인 매장은 유럽풍의 앤티크한 분위기에서 30여 가지의 스페셜티 커피를 맛볼 수 있어 원두 선택에 도움을 주며 직접 만든 요거트 아이스크림과 두툼한 토스트는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다. 또 매달 커피 문화교실을 운영해 양철안 로스터에게 직접 커피의 기본 원리부터 나만의 커피 만드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니 커피 초보자면 참가해보자.

영업시간 10:00~20:00(일요일 휴무)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494번길 9

문의 031-703-6880, www.coffeehappy.co.kr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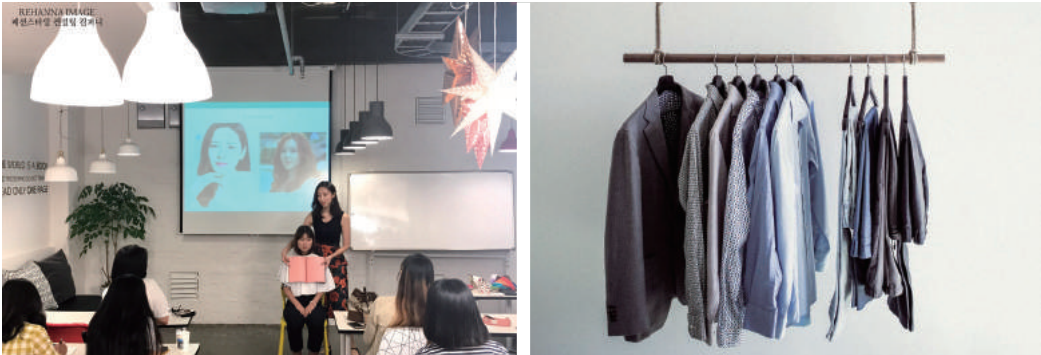
퍼스널 스타일리스트, 리한나 이미지

이미지가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다. 하지만 나만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돌보이는 강점이 무엇인지, 가려야 할 단점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리한나 이미지(Rehanna Image)는 그런 이들에게 딱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패션 컨설팅 컴퍼니로 개개인의 이미지와 성향, 업종에 따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이미지 컨설팅부터 함께 쇼핑하며 어울리는 옷을 찾아주는 동행 쇼핑 서비스까지, 외적인 모든 부분을 책임진다.

베이직 클래스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퍼스널 컬러, 기초적인 스타일링을 배울 수 있다. 확고한 자신만의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면 1:1 퍼스널 클래스를 추천한다. 주 4회 진행하는 클래스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스타일 컨설팅을 받아보자. 두 시간 안에 내 체형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스타일을 처방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상견례, 파티, 면접 등 스타일링이 필요한 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스페셜데이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니 특별한 날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이용해보자.

주소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29가길 79, 402호

문의 010-8081-8936, www.rehannaimage.com



남성만의 매력적인 특권, 레드폴 바버샵

뉴욕의 힙스터들이 방문할 것 같은 이곳은 남성 전용 이발소, 즉 바버숍이다. 여성들로 북적이는 미용실을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남성들을 위해 바버숍이 곳곳에 생기고 있지만 '레드폴 바버샵'은 개인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짧은 머리를 유지해야 하는 남성들은 같은 스타일이더라도 두상에 따라 큰 차이가 있기에 사전 미팅을 통해 고객의 두상과 원하는 스타일을 파악하고 시술하기 때문. 또 해외에서 직접 공수한 제품으로 면도 후 자극받은 피부를 케어해주는 서비스까지, 이 모든 서비스를 받는 데 3만9000원(평일 기준)만 지불하면 된다. 한 시간 동안 커트, 셰이빙, 스타일링까지 진행하는데 다소 긴 시간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그만큼 세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93%의 고객이 재방문한다고.

레드폴 바버샵은 의류 매장 안에 숨인숍 형태로 운영해 대기하는 동안 지루하지 않고 스타일링 후 쇼핑도 가능하다. 주차가 까다로운 압구정 로데오에 위치해 있지만 주차 공간을 확보해 어렵지 않게 주차할 수 있다.

영업시간 11:00~21:00

주소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61길 21-3 1층

문의 010-4829-9712



나만을 위한 독서 시간, 플라이북

독서는 하고 싶는데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난감할 때, 독서 욕구는 충만하는데 책을 고를 시간이 없을 때 베스트셀러만 뒤적이다 독서를 포기하기 일쑤다. 그럴 때 꼭 맞는 서비스가 있으니, 바로 플라이북(Fly Book)이다. 지금의 기분, 취향, 관심사를 터치 몇 번으로 저장해두면 방대한 도서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책을 추천해주고 정기 배송 서비스를 구매하면 정성스럽게 포장해 배송까지 해준다. 책과 함께 보면 좋을 콘텐츠와 어여쁜 캘리그라피가 함께 들어 있어 고객의 반응도 좋다. 특별한 선물을 받는 느낌이다. 막상 책을 받았는데 독서 습관이 들지 않아 어렵다면 플라이북에서 진행하는 '묵독파티'에 참가해보자. '묵독(默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인사, 자기소개, 토론 없이 오로지 독서만 하는 모임이니 수다 모임으로 변질될 우려가 없다. 물론 원한다면 독서 후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

문의 070-5029-1422, www.flybook.kr, respect@flybook.kr



자유여행과 패키지여행의 장점만 골라, 내일투어 '우리만'

"요새 누가 패키지여행을 해?" 요즘은 자유여행이 대세지만, 패키지여행에 대한 수요 또한 여전하다. 바빠서 준비할 시간이 없거나 여행 준비에 소질이 없어도 여행은 가야 하니까! 가이드와 인솔자의 도움으로 편리하고 편안하게 여행하는 맛도 색다르다. 하지만 패키지여행은 처음 본 사람과 며칠을 함께 지내는 데다 어색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고 원치 않는 쇼핑을 하는 등 단점이 동반된다. 뽕뽕한 일정과 정해진 스케줄에 맞춰 단체 관광을 하지 않는 패키지여행이 있으면 좋겠다는 건 여행족의 오랜 바람이었다. 개별 여행 전문 내일투어는 자유여행과 단체 패키지여행의 장점만 모아 개별 패키지여행 '우리만'을 선보여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인원 상관없이 가족, 친구, 우리 모임으로만 한 팀이 되어 패키지여행을 할 수 있다. 내일투어 코디네이터가 사전에 상세한 상담을 통해 개개인이 원하는 관광지, 맛집, 공연, 투어 등을 골라 일정을 만들어준다. 항공, 열차, 전용 차량도 이동 시간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 내일투어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거나 방문 상담을 요청하면 전문 코디네이터가 반겨줄 것이다.

상담 시간 월~금요일 09:00~18:00

주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11길 43 내일투어빌딩

문의 02-6262-5000(서울지사), 051-441-1995(부산지사), 053-428-8000(대구지사), www.naeiltour.co.kr

TASTY



THE MOST PERSONAL RESTAURANT

나만을 위해 준비된 공간에서의 특별한 한 끼.
세심한 배려와 정성이 가득 담긴 서비스를 받고 있노라면 셀러브리티 부럽지 않다.

EDITOR 김은성 PHOTOGRAPHER 김권석

오늘은 내가 이 테이블 주인, 셰프 김태홍

하루에 한 팀만 예약할 수 있는 비밀의 레스토랑 '셰프 김태홍'. 120년 전통의 프랑스 요리 학교 르코르동 블뢰 출신 김태홍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으로 프랑스 가정식을 선보인다. 당일의 재료 신선도에 따라 셰프가 매일 메뉴를 선정하는 만큼 늘 새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다. 플레이팅도 눈여겨볼 만하다. "식기도 플레이팅도 정해진 룰은 없어요. 그날의 재료와 제 기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죠. 집에서 먹는 음식도 그렇잖아요."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다양한 스타일을 만들어내 이미 미식가들 사이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아름다운 분위기에서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다. 셰프의 친절한 해설과 서비스는 덤이고 직접 가져온 술을 무료로 마실 수 있는 '코르크지 프리' 서비스도 인기에 한몫한다. "각자 집에 묵혀둔 와인을 들고 오세요. 친구 집에 놀러 가듯이요. 다양한 와인이 테이블 위에 모이는 것도 참 재밌어요." 주중에 따라 메뉴가 달라지기도 한다니 어떤 술을 가져오더라도 완벽한 식사가 가능하다. 특별히 홍보를 하지 않는데도 이미 충성 고객만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번 온 손님이 다른 친구에게 연달아 소개하는 방식으로 고객들은 계산대에서 다음번 식사를 예약하곤 한다.

4인 이하는 총금액 30만 원 이상, 5인 이상은 1인당 7만 원을 기본으로 코스를 구성하므로 가격 부담도 덜하다. 이곳의 인기 메뉴는 일반 파스타 면보다 가는 면인 엔젤헤어를 삶아 차갑게 식힌 뒤 신선한 재료를 얹어 만든 '엔젤헤어 콜드 파스타'와 소고기 안심을 버섯 등과 함께 페이스트 반죽을 입혀 구운 '비프 웰링턴'. 그 밖에 흑 먹고 싶은 재료가 있다면 예약 시 문의해 보자. 원하는 재료가 상상 이상의 메뉴로 테이블에 펼쳐질 것이다.

영업시간 11:00~24:00

주소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55길 72

문의 010-2758-5634



미술랭 스타의 프라이빗 키친, 익스퀴진

2018년에 미술랭 원 스타로 선정된 '익스퀴진(Exquisite)'은 섬세하다는 의미의 영어 'Exquisite'와 식당을 의미하는 'Cuisine'의 합성어다. 그만큼 섬세한 요리와 서비스에 자신 있다는 뜻일까.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 단 네 개의 테이블만 운영한다니 예약은 필수다. 테이블에 놓인 봉투도 특별해 보인다. 붉은 장미색 악스로 봉해진 하얀 봉투를 열면 오늘의 코스가 적힌 종이가 등장한다. 나만을 위한 선물 같은 느낌, 제철 식자재에 따라 메뉴가 달라지니 예약 시 문의할 것.

레스토랑에서 직접 재배한 허브와 산지에서 공수하는 제철 재료로 만들어 신선함은 기본이다. 참기름, 된장, 간장 등 한국적 재료의 특성을 십분 활용해 새로운 한식을 만들어내는데 익숙한 재료라 해서 먹어본 맛일 거라 짐작하면 오산이다. 참기름 파우더를 뿌린 스낵, 잣 밀크를 부어 먹는 구운 삼치, 초콜릿 가나슈를 넣은 오미자떡까지. 한식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셰프의 실험정신이 돋보이는 음식은 입에 넣는 순간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재미있으면서도 익숙한 맛이기 때문이다. 쫄면 감자구이에 우니 버터를 뿌린 요리, 흑마늘 소스를 얹은 오리고기, 팝콘과 핑크 머랭을 얹은 아이스크림 등은 정해진 메뉴명이 없다. 그때그때의 재료와 아이디어에 따른 레시피다. 음식과 곁들일 와인은 한 병까지 코르크지 무료다. 오늘의 메뉴와 어떤 와인이 어울릴지 궁금하다면 셰프에게 직접 물어보자. 친절히 귀뜸해줄 것이다.

미술랭 선정 레스토랑이라 하면 가격이 부담스러울 법하지만 익스퀴진은 런치 1인 4만5000원, 디너 1인 9만5000원이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스낵부터 디저트까지 즐길 수 있어 더욱 반갑다.

영업시간 12:00~15:00(점심), 18:00~22:00(저녁)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140길 6

문의 02-542-6921



CALIFORNIA DREAMING

개인의 취향에 맞게 휴식과 액티비티를 모두 아우르는 다양한 여행 코스를 선택할 수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로 떠나는 여행. 당신을 꿈꾸게 하는 도시 캘리포니아에서 흥미진진하면서도 아름다운 여정이 시작된다.

EDITOR 이종훈 COOPERATION 캘리포니아 관광청(www.visitcalifornia.com/kr)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주인 캘리포니아(California)는 면적이 40만3932km²로 우리나라의 네 배 정도다. 캘리포니아주의 12개 지역은 각기 다른 고유의 특징이 있으며, 넘치는 활력과 역동적 분위기, 최첨단 시설, 누구나 인정하는 아름다운 경치로 미국인은 물론 세계 각국의 여행객에게 사랑받고 있다. 문화, 예술, 자연, 요리, 쇼핑, 엔터테인먼트 등 여러 요소가 결합된 캘리포니아에는 매력적인 관광지가 즐비하다.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남부와 북부 캘리포니아의 놓치지 말아야 할 핫 스팟을 소개한다.



에어리얼 트램을 타고 웅장한 협곡과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리인 샌프란시스코 금문교는 바다 위를 가로지른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

캘리포니아 제1의 도시, 로스앤젤레스

미국 캘리포니아 최대의 메트로폴리탄 도시,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LA). 패서디나 · 컬버시티 · 잉글우드 · 샌타모니카 · 롱비치 등의 위성도시를 포함한 인구는 700만을 넘어 뉴욕 지역에 이어 미국 제2의 거대한 대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다. LA 다운타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해안 도시 샌타모니카(Santa Monica)는 태평양 연안의 무드가 물씬 느껴진다. 넓고 한적한 해변, 카니발 놀이기구, 레스토랑이 가득한 유명한 부두 거리가 있다. 자동차를 타고 샌타모니카 블러바드(Boulevard)를 따라 북동쪽으로 가다 보면 유명한 베벌리힐스가 나오고 조금만 더 동쪽으로 가면 할리우드에 도착한다. 최신 유행으로도 유명한 LA 다운타운은 새로운 이주민의 유입으로 늘 활기가 넘친다. 도심의 옛 건물들은 과거의 흔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브로드웨이에 위치한 화려한 장식의 유나이티드 아티스츠(United Artists) 건물은 1927년에 개장한 유서 깊은 곳이다. 현재 뉴욕 · 포틀랜드 등에도 체인이 있으며, 모던하면서 빈티지한 스타일의 에이스 호텔로 재탄생해 고품격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도심 속 대표 공원인 그랜드 파크를 비롯해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이 위치한 뮤직 센터에서 LA 시청까지 모두 돌아볼 수 있다.

LA의 마지막 여정으로 택한 곳은 유니버설 스튜디오 할리우드다. 영화 속 테마를 가미한 놀이기구와 영화 속에서 만난 환상적 분위기의 야외 촬영지를 직접 둘러볼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곳이다. 영화 <쥬라기 공원>의 티라노사우루스와 정면 대결하거나 영화 <미미라의 저주> 테마의 무덤에서 공포 체험을 하는 등 흥미진진한 즐길 거리로 가득하다.



캘리포니아 남부 해변 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헌팅턴 비치의 여유로운 오후 풍경

서퍼의 천국, 헌팅턴 비치

남부 캘리포니아를 방문한다면 한나절이라도 시간을 내어 해안 도시 헌팅턴 비치(Huntington Beach)의 눈부신 태양 아래 맑고 투명한 바다를 만끽해볼 것. 전 세계 서퍼들이 모이는 이곳은 서핑의 열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서핑 포인트다. 캘리포니아 남부 해변 문화는 바로 이 헌팅턴 비치를 중심으로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다. 해안을 따라 바다 절경을 감상하며 자전거를 타다 시원한 바다의 품에 안기고 싶으면 서핑보드를 들고 바다로 뛰어들면 그만인 곳. 서핑을 못하는 사람은 지역 명소인 헌팅턴 피어를 걸으며 파도 타는 서퍼들의 놀라운 묘기를 감상하는 것도 좋다. 헌팅턴 피어에서 조금만 가면 멋진 부티크와 레스토랑이 즐비한 메인 스트리트로 이어진다. 노천에 마련된 펍이나 카페의 테이بل에 앉아 헌팅턴 비치의 상쾌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커피 한잔의 여유를 누리보자.



투명한 바다 위에서 파도를 기다리는 서퍼들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유명 리조트가 많아 세계의 부호들이 즐겨 찾는 팜스프링스

낭만 도시, 팜스프링스 에어리얼 트램

모던한 분위기가 물씬한 팜스프링스는 프랭크 시나트라,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당대 최고 스타가 집을 짓고 살던 곳으로 유명하다. 당시의 레트로 양식에 젊은 에너지와 힙한 감각이 더해진 이곳은 맛집과 고급 숙박시설, 쇼핑 디스트릭트 등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팜스프링스 에어리얼 트램(Aerial Tram)을 타면 약 10분 만에 뜨거운 사막지대에서부터 시원한 고산지대 정상까지 이동이 가능하다. 이 트램은 정상으로 올라가면서 천천히 회전하는 회전형 케이블카로, 샌자신토(San Jacinto)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 2600m의 마운틴 스테이션까지 약 4km 거리를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보이는 웅장한 임벽과 협곡 풍광에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샌자신토산 주립공원과 야생보호구역까지 약 80km 거리의 오솔길을 따라가는 트레킹 코스도 있다. 이곳의 라운드 벨리는 겨울에도 그림 같은 풍경을 자랑하는 캠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겨울철에도 스키나 하이킹을 즐기는 사람들로 붐빈다. 정상에는 두 개의 고급 레스토랑인 피크 레스토랑과 파인스 카페가 있어 경관을 즐기며 쉬어가기 좋다. 전망대, 자연사 전시관, 다큐멘터리 필름을 상영하는 작은 영화관이 있어 다양한 재미를 선사한다. 팜스프링스는 밤이면 하늘에서 쏟아질 것 같은 무수한 별, 고요한 바람소리 등 사막에서만 누릴 수 있는 신비로운 자연경관을 만끽할 수 있다.



ABROAD

광대한 면적의 산악공원인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즐기는 대자연의 아름다움



시내 곳곳을 달리는 샌프란시스코의 명물, 케이블카를 타고 시티 투어를 즐겨보는 것도 좋다.

반짝이는 해변과 마법의 도시, 샌프란시스코

601km² 면적의 샌프란시스코는 세계 최고의 도시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북부 캘리포니아의 움푹 파인 해안가에 자리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은 사시사철 사람을 이끄는 매력을 발산한다. 붉은색이 선명한 금문교의 교각, 햇살이 내리쬐는 해안가, 빅토리아 시대의 우아한 저택 등 볼거리가 풍부하다. 세계 최정상급의 교향악단·발레·극장·오페라 등 문화의 향연이 펼쳐지고, 한계를 모르는 아웃도어 라이프까지 샌프란시스코의 매력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 또 샌프란시스코에는 미술랭 스타를 받은 다이닝부터 개성 만점 푸드트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도락이 넘쳐난다. 샌프란시스코 하면 단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2.7km의 아름다운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리 금문교다. 금문교에 도색된 붉은색의 공식 이름은 '인터내셔널 오렌지(International Orange)'. 다리를 건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붉은색에 압도당한다.

샌프란시스코의 밤문화와 미식을 즐기고 싶다면 미션 디스트릭트의 발렌시아 스트리트로 가보자. 최신 트렌드의 바·레스토랑이 즐비하고, 늦은 시간까지 영업하는 바이-라이트 아이스크림에서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맛보는 것도 여행의 묘미 중 하나다.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 시에라네바다 산맥에 위치한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해발 고도 4000~6000m에 이르는 고산지대와 전체 면적 1100m²의 세쿼이아 삼림, 요세미티 계곡 등으로 이루어진 광대한 산악 공원이다. 웅장한 폭포와 세계 최대 화강암 바위로 대자연을 즐기려는 이들에게 각광받으며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다. 이 광활한 국립공원은 다양한 야생동물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하이킹, 래프팅, 암벽 타기, 승마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요세미티 밸리의 깎아지른 듯 솟은 기암절벽과 투울럼 초원의 아름다운 고산식물에 이르기까지 잊지 못할 자연의 절경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CITY REFORMER

포드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이동성 공급 업체로 회사 성격을 바꿀까하려 한다.
자동차 회사가 만드는 미래 사회, 포드를 보면 미래가 보인다.

WRITER 임유신(〈evo〉편집장)



세상이 변하고 있다. 예전부터 변화해왔지만 요즘 들어 유독 속도가 빠르다. 특히 자동차 세계가 그렇다.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공유 서비스 등 전통적 자동차와 이용 행태의 근간을 흔드는 급격한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자동차 회사도 같이 변할 수밖에 없다. 멋지고 강한 자동차나 쓸모 있고 튼튼한 자동차 만들기를 미덕으로 삼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자동차 자체의 변화는 물론, 연관된 환경 변화까지 책임져야 하는 시대다. 자동차 회사의 역할이 무분별하게 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따지고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자동차와 함께하는 시간을 생각해보자. 자기 차를 몰고 출퇴근을 하든, 버스나 택시를 타든 하루에 일정 시간 이상은 자동차와 함께한다. 주변을 둘러보면, 도로에 다니는 차와 주차장에 서 있는 차 등 주변에는 수십, 수백 대의 차들이 둘러싸고 있다. 집에 머물든 회사에서 일하든, 차를 소유했다면 그 차는 항상 멀리 않은 주차장에서 대기한다. 자동차는 이웃이나 마찬가지로, 물과 공기 같은 존재다. 어떻게 하면 자동차와 잘 어울려 살지 고민해야 한다. 이런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곳은 자동차 회사다. 자동차를 만드는 주체가 자동차를 가장 잘 알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자동차 세계를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할 적임자인 셈이다.

CES의 주인공이 된 자동차

자동차 세계의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는 CES다. 세계 최대 규모 가전 박람회에서 해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전자제품과 IT가 중심인 CES에 수년 전부터 자동차 회사들이 진출하기 시작했다. 구색 맞추기 식으로 자리 하나 차지해 자동차 홍보나 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당당하게 주인공으로 참가한다.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커넥티드카 등 자동차의 전자제품화가 급속히 이뤄지면서, IT와 융합이 자동차 업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등 첨단 IT 기술을 자동차 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기에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에 연관 분야와의 협업은 필수다. CES야말로 자동차 회사들이 IT 분야와 협력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CES가 자동차 쇼로 변했다는 말이 나오는 반면, 전통적 모터쇼는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무게중심이 CES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CES는 1월 초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미국에서 가장 큰 모터쇼인 북미 국제 오토쇼는 바로 이어서 시작한다. 자동차 회사들이 CES로 몰리는 바람에 북미 국제 오토쇼 수준이 예전만 못해졌다. 불참하는 업체가 나올 정도다. 자동차 회사 CEO들도 북미 국제 오토쇼보다 CES를 더 중시한다. 급기야는 북미 국제 오토쇼 개최 시기를 10월로 바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자동차 세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다.



CES에서 보여준 포드의 미래 비전

포드는 미래 자동차 세계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자율주행을 비롯해 커넥티비티, 공유 서비스 등 자동차와 주변 환경까지 아우르는 변화를 주도해나간다. 해마다 CES에 참가한 포드는 2018 CES에서 미래 자동차 환경 변화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포드 CEO인 짐 해킷은 CES 기조연설을 맡아 자동차 회사가 실현해가는 미래 도시 구현을 위한 혁신 비전에 관해 설명했다. 이제껏 해온 활동에서 한 단계 발전한 방향을 제시한다.

마시 클레본 포드 부사장 겸 모빌리티 담당 사장이 언급한 사례를 보면 포드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 수 있다. 복잡한 뉴욕 도심에서 한 커플이 큰 카펫을 샀다. 그런데 집까지 어떻게 운반할까? 등에 짊어지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는 힘들다. 택시에는 실을 수도 없다. 현실적인 방법은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 물건을 보내고 커플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집에 들어가는 것이다. 우선 카펫이 실릴 만한 배달차를 찾기가 쉽지 않다. 운 좋게 카펫을 산 곳에서 배달 서비스를 해준다 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는다. 배달차가 커플보다 먼저 도착하면 커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커플이 사는 아파트 앞에 배달차가 주차할 곳이 없다면, 가장 가까운 주차장을 찾아 차를 대놓아야 한다. 기다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이중 주차를 해야 하고, 주변 교통에 방해가 된다. 설사 부재중 배달해 어딘가에 맡겨놓는다 해도, 차를 세우고 나르는 과정에서 주차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카펫 하나 사서 집에 가지고 가는 데 생각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만약 배달 서비스가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파악해 커플과 동시에 도착하도록 하고, 먼저 도착하는 경우를 대비해 근처 주차장 여유 공간을 파악하고 결제까지 마친다면 어떨까? 물건 배송도 수월하게 이뤄지고, 교통에 방해가 되지도 않고, 물건도 정시에 배달할 수 있다. 물건을 사서 집에 보내는 단순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을 원활히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수많은 요소가 정보를 공유하고 스마트하게 연결돼야 한다. 기반 시설과 시스템을 다 뜯어고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최적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지가 중요하다. 변화를 위해 새로운 요소를 투입할 필요도 있다. 자율주행차도 새로운 요소 중 하나다.

날로 복잡해지는 도시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기반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은 달라져야 한다. 포드가 혁신적 해법을 제시한다.

1 교통 이동성 클라우드 플랫폼(Transportation Mobility Cloud)

포드는 도시환경과 교통 시스템을 최적화하기 위해 정보를 연결하고 정보 흐름의 효율성을 높이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도시에는 여러 교통수단이 있지만, 각각 제 역할을 잘하더라도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효율성을 높이는 일은 쉽지 않다. 포드는 '교통 이동성 클라우드'를 개발 중이다. 방대한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최적의 방법을 찾아낸다. 포드가 실리콘밸리 교통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인 오토노믹과 협업해 개발 중인 이 플랫폼은 도시의 상황과 자동차 이동을 밀접하게 연결한다. 예를 들면, 배송차는 물건을 내릴 곳의 주차장이 비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 자리를 확보하고 결제까지 진행할 수 있다. 자리가 없어서 헤매거나, 불법으로 이중 주차를 해서 혼잡을 유발하지 않는다. 주차 시설을 관리하는 곳은 다음 이용자에게 주차장 상황을 미리 알려줘서 배송 일정을 잡는 데 도움을 준다. 이처럼 이용자나 기업은 일정을 스마트하게 처리할 방법을 찾거나, 날씨와 예산 등 각 상황에 맞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해 경로 파악이나 신원 확인, 결제 수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포드는 미래 자동차 세계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 자율주행을 비롯해 커넥티비티, 공유 서비스 등 자동차와 주변 환경까지 아우르는 변화를 주도해나간다.

2 셀룰러 기반 자동차-사물 통신 C-V2X(Cellular Vehicle-to-Everything)

이동통신 서비스를 자동차에 접목하는 기술을 C-V2X라고 한다. 자율주행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와 모든 사물을 연결해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C-V2X는 자동차와 자동차 간 소통(V2V, Vehicle-to-Vehicle), 자동차 대 인프라(V2I, Vehicle-to-Infrastructure), 자동차와 보행자(V2P, Vehicle-to-Pedestrian) 간 통신기술을 아우른다. C-V2X는 자동차에 달린 이동통신 기술을 사용한다. 자동차 시스템이 한층 간결해지고, C-V2X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완성할 수 있다.

포드는 쉐컬과 함께 샌디에이고에서 미국 최초로 C-V2X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자동차, 신호등, 표지판, 보행자 보호 장치 등이 하나로 소통하도록 한다. 센서와 카메라로 인식할 수 없는 실시간 도로 상황이나 변경된 지도 정보 등도 제공한다. 이런 정보를 공유하면 교통을 원활히 해 교통 체증이 줄어든다. 도로의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도로의 위험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알려줘서 운전자가 안전하게 피해갈 수 있도록 돕기도 한다. 경로상 정체 구간을 파악해 막히지 않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긴급 자동차의 경우 현장까지 막히지 않고 갈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

3 서비스로서 운송과 이동성(Transportation as a Service, Mobility as a Service)

자율주행은 사람의 이동 편의만을 위한 기술이 아니다. 물류와 배송에 자율주행을 도입하면 혁신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자율주행은 시간을 가리지 않는다. 하나만 배송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지점을 거치면서 물건을 수집하고 배송한다. 물류와 배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면 도시 차량의 흐름도 좋아지고 배송 시간도 짧아진다. 상업이 활성화하는 효과도 얻는다.

자율주행차는 일반 자동차처럼 보급되려면 시간이 걸린다. 카 셰어링 서비스나 배송 등 공공 또는 상업 영역에서 우선 쓰일 가능성이 높다. 완전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자율주행차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거나 수익을 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자율주행 배송 역시 이런 관점에서 활용도를 높이는 한 방법이다.

포드는 미국 배달 서비스 업체인 포스트메이츠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검증에 나선다. 포드는 이미 도미노피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를 시연했다. 배달 품목은 식음료 배달을 비롯해 각종 소매 물품 등 다양하다.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도 사업 환경을 개선할 수도 있는 기회다. 포드는 수십 년 동안 밴과 픽업을 생산하면서 이런 차를 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축적해왔다. 자율주행 배송은 이들을 위한 새로운 생산성 향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자율주행 기술이 지역 경제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센서와 카메라로 인식할 수 없는 실시간 도로 상황이나 변경된 지도 정보 등도 제공한다. 이런 정보를 공유하면 교통을 원활히 해 교통 체증이 줄어든다.



GENUINE PERFORMANCE

진정한 고성능차를 보고 싶다면 포드를 주목할 것. 포드는 소형차에서 대형 픽업트럭까지, 핫해치에서 슈퍼카까지 모두 아우르는 충실한 고성능차 라인업을 갖췄다. 고성능차는 어떠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준다.

WRITER 지현성(자동차 칼럼니스트)

‘아우른다’는 자동차 세계에서는 쉽사리 쓰기 힘든 말이다. 워낙 분야가 방대한 데다 각 분야의 깊이도 남달라 한 업체가 모두 다 룬다거나 잘할 수는 없다. 예외적인 업체들이 몇 개 있는데 포드가 그중 하나다. 포드는 대중차부터 고급차, 소형차부터 대형차, 일상용 자동차부터 슈퍼카까지 만드는 다재다능한 면모를 지녔다.

특히 눈에거볼 부분은 고성능차다. 자동차의 본질은 힘과 속도다. 고성능차는 자동차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차종이기에 업체들은 브랜드 이미지를 위해 고성능차를 개발한다. 하지만 대부분 한두 종류 보유하는 데 그칠 뿐, 라인업을 체계화해서 갖춘 브랜드는 그리 많지 않다. 기술력은 물론 전통과 인지도 등도 뒷받침해야 하므로 아예 만들지 못하는 브랜드도 있다. 포드는 고성능차 라인업을 확실하게 갖췄다. 특히 고성능차 중에서도 최고봉인 슈퍼카까지 만들어낸다. 슈퍼카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 전문 브랜드가 주로 만든다. 양산차 브랜드에서 슈퍼카까지 만들어내는 일은 극히 드물다. 포드가 자동차 전반을 아우르는 브랜드로 평가받는 이유는, 체계적인 고성능차 라인업에 더해 슈퍼카까지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GLOBAL FORD

트랙을 뜨겁게 달군 차 8대는 F-150 랩터, 피에스타 ST(구형/신형), 포커스 RS, 머스탱 GT, 머스탱 GT350R, GT, GT 경주차였다. 정통 스포츠카와 스포츠 쿠페, 소형 · 준중형 해치백, SUV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차종이 포드 고성능차의 현주소를 확실하게 보여줬다.



각양각색 고성능의 한자리 대결

지난 1월 포드 고성능차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 아라곤에 자리 잡은 모터랜드에서 포드 고성능차 8종이 모여 대결을 펼쳤다. 트랙을 뜨겁게 달군 차 8대는 F-150 랩터, 피에스타 ST(2017형/2018형), 포커스 RS, 머스탱 GT, 머스탱 GT350R, GT, GT 경주차였다. 정통 스포츠카와 스포츠 쿠페, 소형 · 준중형 해치백, SUV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차종이 포드 고성능차의 현주소를 확실하게 보여줬다.

8대의 대결은 정해진 거리를 주파한 시간으로 승부를 가리는 타임 트라이얼 방식으로 이뤄졌다. 차종과 급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흥미를 더하고 보다 팽팽한 접전이 이뤄지도록 시차를 두고 출발하는 규칙을 세웠다. 서킷 길이는 5.345km, 기회는 딱 한 번뿐이다. 성능이 막강한 고성능차, 그것도 치열한 승부를 다투는 순간에 아무나 운전할 수 없는 법. 실력이 쟁쟁한 포드 칩 가나시 레이싱팀 드라이버들이 운전대를 잡았다.

가장 먼저 출발한 차는 F-150 랩터. 그 뒤를 이어 피에스타 ST 2017년형과 2018년형이 각각 11초와 13초 후에 출발한다. 포커스 RS 18초, 머스탱 GT 21초, 머스탱 GT350R 31초, GT 38초, GT 경주차 48초 순으로 이어진다. F-150 랩터가 타이어에서 흰 연기를 내뿜으며 튀어나간다. 48초 후 느긋하게 기다리던 GT 경주차가 출발선을 떠나면서 온전한 경쟁의 막이 올랐다. F-150 랩터가 출발한 지 2분여가 지난 시간, 시차를 두고 출발한 8대가 서서히 무리를 이루기 시작한다. 각자의 기록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주변 상황을 보가면서 테크닉을 발휘할 때다. 코너를 벗어나는 순간 주황색과 노란색 머스탱 두 대가 스치고 지나갈 뻔한 아찔한 상황도 벌어진다. 그만큼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경쟁이다.

최종 48초 차이를 두고 출발한 8대의 차는 거의 비슷하게 결승선을 밟았다. 기록은 GT 경주차 1분 40초 00, GT 1분 50초 02, 머스탱 GT350R 1분 58초 14, 머스탱 GT 2분 08초 19, 포커스 RS 2분 11초 01, 피에스타 ST(2018) 2분 16초 56, 피에스타 ST(2017) 2분 19초 01, F-150 랩터 2분 30초 65. 각 차의 성능에 맞는 최상의 기록이다. 좋은 기록을 내는 데만 그치지 않고 주행 내내 드라이버들의 호평이 터져나왔다. “여유로운 출력이다. 놀랍다. 코너를 멋지게 돌아나간다.”(F-150 랩터), “방향을 바꿀 때 움직임이 매우 부드럽다.”(피에스타 ST 2017), “광장히 민첩하다. 일반 도로용 자동차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피에스타 ST 2018), “접지력이 매우 훌륭하다. 기대 이상이다.”(포커스 RS), “토크가 엄청나다.”(머스탱 GT), “풀을 발라놓은 듯 지면에 밀착한다. 이 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멋진 차를 모르는 사람이다.”(머스탱 GT350R), “다 따라잡겠다!”(GT)

GT와 머스탱을 제외한 나머지 차들은 일반 모델의 성능을 키웠다. 고성능차로 탈바꿈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 모델의 기본기가 탄탄하다는 뜻이다. 각 차의 면면을 살펴보면 포드 고성능차 라인업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차종을 가리지 않는 다양한 고성능

피에스타는 1976년부터 생산하기 시작한 포드의 소형차다. 지금까지 1600만 대 이상 생산한 인기 모델이다. 포드 고성능 모델은 성능에 따라 ST와 그보다 높은 RS로 나뉘는데 피에스타는 ST 등급이 최고다. 신형 피에스타 ST는 1.5L 3기통 에코부스트 엔진을 얹는데 출력이 200마력에 달한다. 0→시속 100km 가속은 6.7초, 이번 대결에 함께 나온 이전 피에스타 ST는 에코부스트 1.6L 182마력에 0→시속 100km 가속은 6.9초였다. 성능을 키워 작지만 강한 차 특성을 더욱 강화했다.

포드 포커스 RS는 누구나 인정하는 핫해치 세계의 절대 강자다. 유럽은 고성능 해치백 시장이 상당히 크고 차종도 많은데, 그중에서 오랜 세월 원톱으로 인정받는 모델이 포커스 RS다. 2.3L 에코부스트 엔진의 최고출력은 350마력에 달한다. 최고시속은 268km, 0→시속 100km 가속은 4.7초를 기록했다. 이번 대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RS보다 한 단계 아래인 ST도 출중한 성능을 인정받는다. 기분이 된 포드 포커스는 유럽 시장에서 판매 상위권을 차지하는 인기 모델이다.

머스탱은 설명이 필요 없는, 포드를 대표하는 스포츠카다. 5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스포츠카의 아이콘이기도 하다. 현재 6세대 모델까지 나왔고, 최근 페이스리프트를 거친 신형 모델 2018 뉴 머스탱을 선보였다. 2.3L 에코부스트 모델이 역동성과 일상성을 겸비한다면, GT는 역동성에 조금 더 치중한다. GT는 5.0L 자연흡기 V8을 얹어 450마력, GT350R은 5.2L V8로 GT보다 더욱 강한 526마력의 힘을 낸다. 포드는 머스탱 스페셜 모델을 끊임없이 내놓기 때문에 강하고 특별한 머스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F-150 램퍼는 좀 의외일 수 있지만, 고성능은 분야를 가리지 않는다. SUV도 고성능을 표현하는 좋은 소재다. F-150은 픽업트럭과 동의어로 쓰일 만큼 상징적인 모델이다. 미국 시장에서 차종을 통틀어 수십 년째 판매 1위를 달린다. 포드는 F-150에 램퍼라는 고성능 모델을 만들어 픽업트럭을 색다르게 즐기고자 하는 계층을 공략한다. 3.5L V6 에코부스트 엔진을 올려 450마력을 뽑아낸다. 간혹 깜짝 등장하는 스페셜 모델은 더욱 강력한 힘으로 픽업트럭의 한계를 뛰어넘는다.

GT는 고성능차 중에서도 스포츠카보다 한 수 위로 여기는 슈퍼카다. 3.5L V6로 뽑아내는 655마력의 힘도 놀랍지만, 차에 담긴 드라마틱한 전통과 강렬한 카리스마는 더욱 놀랍다. 슈퍼카는 유럽 브랜드가 강세인데, 그에 맞설 수 있는 미국산 슈퍼카의 대표 모델로 GT가 꼽힌다. GT는 한정판 모델이라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500대 한정 생산 물량은 매진됐고, 추가 생산 요구가 너무 커서 500대를 더 만들기로 했다. GT는 경주차로도 변신해 르망 GTE 클래스에서 우승하는 등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요즘 자동차 시장의 트렌드 중 하나는 고성능차의 약진이다. 남과 다른 개성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마니아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고성능차 분야에 일반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체들도 더욱 쉽게 고성능차에 다가설 수 있도록 대중성을 높인 고성능차를 속속 선보인다. 포드는 오래전부터 고성능차 라인업을 충실히 운용해왔다. 고성능차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일반 대중에게도 잘 어울리는 고성능차를 만드는 노하우가 남다르다. 고성능차 시대, 포드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포드는 오래전부터 고성능차 라인업을 충실히 운용해왔다. 고성능차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일반 대중에게도 잘 어울리는 고성능차를 만드는 노하우가 남다르다. 고성능차 시대, 포드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TIME CONNECTOR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과거다. 오랜 전통이 현재로 이어지고, 과거의 영광이 현재에 재현된다.
포드라는 연결 고리가 시공을 초월해 과거와 현재를 연결한다.

WRITER 임유신(《evo》편집장)

포드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온 유서 깊은 브랜드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첨단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만, 영광스러운 과거의 전통도 꾸준히 이어간다. 포드의 과거는 역사책 속에 남아 있는 묵은 유산이 아니다. 과거의 모습이 진행형으로 현재에 투영된다. 오래전부터 쌓아 올린 빛나는 업적을 재해석, 현대화해 새로운 전통으로 승화시킨다. 포드의 과거는 현재에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나타난다. 과거와 현재가 단절 없이 이어지고 시공을 초월해 하나가 된다.



머스탱 패스트백 1968 vs 2018

머스탱이 레고로 부활했다. 포드는 종종 레고와 협업해 자사 모델을 선보이곤 한다. 이번에는 머스탱 부분 변경 모델 출시를 앞두고 1968년형 머스탱을 레고로 만들었다. 차체는 녹색이고 범퍼에서 루프로 이어지는 금속 스트라이프를 입혔다. 모두 183피스 구성이다. 레고는 스피드 챔피언 포드 컬렉션을 내놓았는데, 이번 머스탱 제품도 컬렉션에 이름을 올렸다. 포드 GT 레이스카, F-150 랩터, GT40, 피에스타 WRC 랠리카 등 쟁쟁한 차들이 컬렉션을 구성한다.



머스탱 불릿 1968 vs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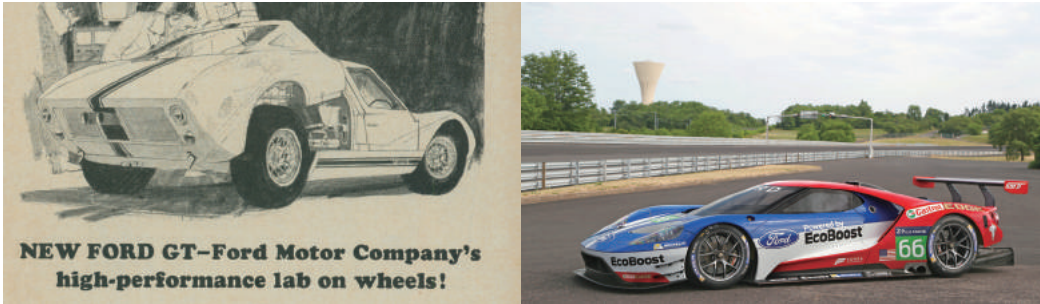
2018년 북미 국제 오토쇼에 선보인 머스탱 불릿은 한정판 특별 모델이다. 이름은 낯설지 않다. 여러 차례 불릿 모델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불릿은 1968년 개봉한 영화 〈불릿〉에서 따온 이름이다. 스티브 매킨이 주연한 이 영화에 포드는 머스탱을 제공했고, 멋진 추격 장면이 만들어졌다. 반세기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불릿〉에 나오는 머스탱 장면은 영화사에 길이 남는 자동차 추격 장면으로 꼽힌다. 이번에 나온 모델은 영화 개봉 50주년을 기념한다.



머스탱 캘리포니아 1968 vs 2018

머스탱은 미국 스포츠카의 아이콘이다. 개성이 강해 조금만 꾸며도 색다른 모델이 탄생하고, 팬층이 두꺼워 스페셜 모델 수요도 크다. 머스탱 캘리포니아는 1968년에 등장한 스페셜 모델이다. 앞뒤 범퍼와 배지 등을 일반 모델과 다르게 해서 색다른 개성을 강조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팔았고, 특별한 차를 원하는 고객을 위한 일종의 틈새 모델이었다. 세대마다 포드는 머스탱 캘리포니아를 선보여왔다.

FOCUS 1



GT 레이스카 1964 vs 2018

GT는 양산 슈퍼카지만 초기 모델은 경주차였다. 포드는 유럽에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모터스포츠 참가를 결정했고, GT40을 개발했다. 1966년 르망 24시간 경주에서 1~3위를 석권했고, 이후 4년 연속 챔피언에 올랐다. 2016년에 선보인 GT는 GT40을 계승한 1세대(2002년)에 이은 2세대 모델이다. 르망 제패 50주년을 기념해 르망 GTE 프로 클래스에 참가해 우승을 차지했다.



GT40 1966 vs 2018

GT40은 긴 공백기를 거친 뒤 2002년 1세대, 2016년 2세대 모델로 이어진다. 2세대는 500대 한정판 모델로 나왔고, 더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빗발쳐 500대를 더 만들기로 한 상태다. 오리지널 모델인 GT40은 레고로도 만들어졌다. 르망 24시 복귀를 기념하기 위해 경기가 열린 2016년 당시 실제 크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레고를 제작했다. 최신 경주차와 과거 GT40 모델 두 종류를 3주 동안 4만 개 블록을 사용해 완성했다.



브롱코 1966 vs 2020

미국 시장의 SUV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차가 바로 익스플로러다. SUV의 대명사로 통하고 국내에서도 인기리에 팔린다. 브롱코는 1966년 첫선을 보여 1996년까지 생산됐다. 브롱코는 익스퍼디션, 브롱코2는 익스플로러로 이어졌다. 포드 SUV의 기틀을 다진 브롱코가 다시 돌아온다. 아직 천에 덮인 티저 이미지만 공개한 상태. 실루엣을 보면 각진 박스형을 강조한 터프한 오프로더 성격으로 추정된다.



머스탱 워치

‘다음 생애에 00으로 태어나면...’ 영화나 드라마 또는 노래 가사에서 종종 들리는 말 중 하나다. 머스탱이 시계로 다시 태어났다. 시계 제조사 REC는 고객에게 머스탱 부품을 받아 시계로 제작한다. 드리프트 챔피언이 타는 차에서 얻은 카본파이버를 시계에 쓰는 식이다. 디자인 요소도 계승하기 때문에 이 시계를 차고 머스탱에 타면 마치 머스탱 전용 컬렉션처럼 보인다. 머스탱의 스타일과 개성을 담아 완성한 시계는 머스탱의 정령이 담긴 특별한 제품이다.



F-시리즈 픽업 1948 vs 2018

포드 트럭의 역사는 19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인기를 누리며 수십 년째 판매 1위를 지키는 F-시리즈도 70년에 이르는 역사를 이어간다. 모양은 세련되게 바뀌고 성능도 강해졌지만, 픽업 본연의 실용성과 다재다능함은 계속 간직하고 있다. 포드 픽업은 짐차를 뛰어넘는 존재감을 드러낸다. 종류도 다양하고 고성능 모델도 갖추는 등 독특한 픽업만의 세계를 펼쳐나간다.



밴 1917 vs 2018

자동차는 이동수단과 함께 적재수단 역할을 해낸다. 승용차 못지않게 트럭과 상용 밴도 자동차 세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포드는 1917년부터 트럭을 만들었다. 유럽에서는 여러 종류의 상용 밴을 만든다. 오랜 세월 축적한 노하우와 높은 완성도로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저 짐 나르는 차로 볼 게 아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적재 전문가다.

* 이 칼럼은 글쓰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HUMANISM FIRST

자동차를 이용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달해도 변하지 않는 원칙이다. 사람을 위한 기술을 우선시하는 포드는 자동차와 사람의 조화를 추구한다.

WRITER 지현성(자동차 칼럼니스트)



자동차의 '끝'은 무엇일까? 연료가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태양전지 자동차, 1000마력이 넘는 출력과 2초대 제로백을 자랑하는 하이퍼카,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자율주행 자동차 등. 끝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 다른 답을 제시한다면 자동차의 끝은 '사람'이다. 제아무리 강하고 빠른 자동차든, 수십억 원이 넘는 고급차든, 아주 깨끗한 친환경 자동차든, 그 차를 타고 이용하는 주체는 사람이다. 결국 자동차는 사람을 위한 기계다. 모든 부분이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자동차 회사는 인체공학을 제품 곳곳에 적용하지만 최우선 요소가 아닌 경우도 생긴다. 여러 이유로 인해 사람이 차에 맞춰야 하기도 한다. 반대의 경우, 즉 차가 사람에게 맞출 때 사람을 위한 진정한 자동차가 탄생한다. 포드는 예부터 사람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해왔다. 자동차라는 제품 자체뿐 아니라 생산 방식, 이용 환경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사람을 중심에 놓고 연구했다. 자동차의 끝은 사람이라는 궁극의 목표를 놓고 인본주의를 실천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포드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다.

시트 개발을 위한 로봇 기술, 로버트

한 사람이 평생 자동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은 4년 정도라고 한다. 자동차 활용도가 높은 사람이라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이다. 자동차 안에서 서서 보내지는 않을 터. 대부분의 시간은 앉아서 보낸다. 그래서 자동차 시트는 매우 중요하다. 운전자와 직접 밀착하는 부분이고, 오래 앉아 있기에 편하고 신체에 부담이 가지 않아야 한다.

포드는 사람의 하반신 움직임을 재현하는 로봇을 신차 개발에 활용한다. '로버트(Robutt)'라 불리는 로봇으로, 사람이 자동차에 타고 내리는 과정을 그대로 구현한다. 3주 동안 2만5000번 반복하는 과정을 거쳐 일반 남성이 10년 동안 타고 내린 상태를 만들어낸다. 어느 부분에 압력이 가해지는지, 그 과정에서 시트 마모는 각 부위에 어느 정도 발생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아태 지역에서도 편안하고 내구성이 강한 시트를 위한 실험이 이뤄진다. 중국 난징 포드 연구소에서는 72시간 동안 24만km 이상 거친 길을 주행한 환경을 재현하는 유압 플랫폼을 활용한다. 사람이 앉을 때의 굴절도를 모방한 로봇, 작은 철제 볼로 시트 직물에 반복적으로 부딪히게 하는 메이스 스내킹 테스트(Mace Snagging Test) 기술을 사용해 최적의 시트를 완성하기 위한 데이터를 얻는다.



산업 간 경계 허문 암 센터와의 협업

이종 분야 간의 결합이 생각지도 않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때가 있다. 병원과 자동차 생산 라인의 결합은 아무리 생각해도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자동차 생산 공정 일부를 암 치료 과정에 도입해 큰 변화를 일으켰다.

독일 쾰른 포드 공장 품질 책임자 마이크 버틀러는 5년 전 암 진단을 받았다. 그는 치료를 위해 병원에 다니면서 암 치료 과정과 자동차 생산 과정을 연결해보려는 시도를 했고 포드 기술팀이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나섰다. 대형 화면을 도입해 의료진 사이에 소통이 더욱 긴밀하고 원활해졌다. 병원 바닥이나 벽지에 색을 입힌 선을 그어 직원이나 환자, 방문객들이 가고자 하는 곳을 쉽게 찾도록 했다. 병원 안에 이동성을 크게 개선해 이용하는 사람들 모두 편해졌다. 이 모두는 포드 생산 공장에서 활용하는 방식이다. 병원 측은 의료 관련 빅데이터를 이용해 포드의 미래 자동차 관련 조사에 도움을 줬다.

이제껏 의료와 자동차의 관계라고 하면, 자동차 사고로 다친 사람이 병원에 실려가 치료받는 일 정도에 머물렀다. 포드와 암 센터의 협업은 사람이라는 공통분모 아래 이종 분야 간 결합이 얼마나 긍정적 효과를 내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피로를 덜어내는 외골격 기술

자동차 공장에서는 반복 작업이 많고,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자세를 취하는 작업을 하기도 한다.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몸에 피로가 쌓이고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 포드 공장에서 특정 직군은 하루 최대 4600번, 연간 최대 100만 번 상체를 젖히고 고개를 들어야 하는 작업을 한다. 포드는 외골격 로봇을 개발하는 엑소 바이오닉스사와 협력해 공장 직원들의 피로와 부상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다. '엑소베스트'라 불리는 이 기구는 고개를 들어 작업하는 직원들의 팔을 한결 편안하게 해준다. 키 150~200cm인 성인 남녀 모두 착용할 수 있고, 별도 동력 없이 최대 7kg에 이르는 양력을 더해 상체 부담을 줄인다. 마치 슈퍼히어로의 슈트처럼 더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준다. 포드는 개발 과정에서 현장 직원의 의견을 반영해 현장에 최적화된 기구를 완성했다. 자동차 공장뿐 아니라 건설 현장이나 유통 센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 회사가 알리는 음주 운전의 위험성

자동차는 문명의 이기지만, 잘못 사용하면 흉기로 변할 수 있다. 운전자의 부주의한 사용이 위험을 유발하는데, 외적인 요인도 한몫한다. 음주나 휴대폰 사용, 약물 복용 등은 주의력을 떨어뜨려 사고를 유발한다. 그 책임은 주류 회사나 휴대폰 제조사, 제약사에 있을까? 자동차를 만든 제조사도 책임을 져야 할까? 자동차 제조사에 전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몽하는 책임은 도의적으로 질 필요가 있다.

포드는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 음주에 대해 경고한다. 술을 마신 당일뿐 아니라 다음 날까지도 운전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드의 연구 결과는 음주한 다음 날 대다수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적 허용치를 넘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그렇지 않더라도 수면 부족이나 반응 속도 저하 등으로 술을 마신 날만큼 위험하다고 설명한다. 포드는 연구에 그치지 않고, 위험성을 알리는 장비를 개발해 활용한다. 독일 마이어 헨첼 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행오버 슈트’는 음주 후 상황을 재현한다. 착용자들은 술을 마신 후 생기는 두통, 집중력 저하, 메스꺼움 등 숙취 현상을 경험한다. 가상 체험 고글도 개발했는데, 문자 보내거나 내비게이션 사용 등 운전을 방해하는 요소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다. 포드는 ‘드라이빙 스킬 포 라이프’ 프로그램을 15년째 운영하는데, 프로그램 안에 행오버 슈트와 가상 체험 고글 등을 넣어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카레이서 뇌 활동 연구

자동차 운전이 힘들고 피곤하다지만, 카레이서와 비교하면 그 정도는 매우 약하다. 자동차 경주는 빠른 속도와 치열한 경쟁, 순간적 판단 등 극한 긴장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일반 운전자가 카레이서처럼 운전할 일은 드물지만, 극한 상황에서 신체나 뇌 활동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일반 운전자에게 적용하면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포드는 이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킹스칼리지와 함께 카레이서의 뇌 활동을 연구했다. 연구는 뇌파 측정 헤드셋을 쓰고 레이싱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고속 구간이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구간에서 카레이서의 뇌 활동 수치는 40% 늘었다. 연구 결과 카레이서의 사고방식이 극도의 긴장감을 이겨내도록 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더불어 일반인도 카레이서처럼 강한 정신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두뇌 능력은 후천적이기에 수양을 통해 키울 수 있고, 훈련을 거쳐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포드는 뇌 활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심장박동 수와 뇌파 측정도 할 수 있는 레이싱 헬멧을 개발하고 있다.

운전자의 감정을 읽고 표현하는 자동차

자동차 간 소통은 중요하지만, 정작 도로에서는 소통 수단이 그리 많지 않다. 방향지시등이나 상향등, 경적 등을 활용해 간단한 소통만 할 뿐이다.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해서 차에 작은 전광판을 달아 글씨로 주변 차에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운전자의 의도를 자동차가 드러내면 어떨까? 다소 황당해 보이는 아이디어를 포드가 현실화했다.

‘포드 퍼포먼스 버즈 카(Ford Performance Buzz Car)’는 운전자의 감정을 읽어 외부에 표현하는 자동차다. 포커스 RS를 개조했고, 웨어러블과 인공지능을 결합해 완성했다. 디자인웍스사와 협업해 콘셉트를 잡고 디자인과 설치,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 개발까지 1400시간을 들여 완성했다. 82개 디스플레이 패널, 18만8416개의 LED, 고성능 VR GO 게임용 PC를 투입했다. 인간이 강한 흥분 상태를 느낄 때를 ‘버즈 모멘트’로 정의하고, 운전자가 버즈 모멘트를 느끼면 차 외부에 불이 들어온다. 버즈 모멘트는 정신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연구에 따르면 스포츠카를 탈 때 버즈 모멘트가 높게 나타난다. 스포츠카보다 높은 버즈 모멘트는 롤러코스터를 탈 때뿐이라고 한다. 롤러코스터는 매일 탈 수 없기 때문에 스포츠 운전이야말로 일상의 행복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이애미 자율주행 서비스 테스트

자율주행은 인간을 운전에서 해방시키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지금도 완전한 상용화를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자율주행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을 선도하는 포드도 꾸준히 테스트를 진행한다. 최근에는 미국 마이애미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테스트한다고 밝혔다. 투입하는 자율주행차는 두 종류로, 하나는 자율주행 스타트업 아르코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도입했다. 다른 하나는 이미 선보인 피자 배달 자율주행 자동차다. 아르코 자율주행차는 데이터 수집에 주력하고, 피자 배달 자율주행차는 소비자 반응 확인에 초점을 맞춘다. 마이애미는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교통이 혼잡한 도시다. 도심과 부도심이 혼합해 발달한 곳이라 자율주행 테스트에 알맞다. 통근하는 사람들은 혼잡으로 낭비하는 시간이 1년에 평균 64시간이고, 이는 자동차 이용 시간의 10%에 해당한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투입하면 도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포드는 테스트를 거친 후 2021년 자율주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TO BE WITH YOU

작은 나무가 모여 큰 숲을 이루듯, 남을 배려하는 작은 실천이 모여 발전적이고 건강한 사회가 완성된다.
지속성과 진정성으로 지역사회와 문화를 지키려는 포드의 사회공헌 활동을 살펴본다.

EDITOR 김민정



포드 그랜츠 나잇



드라이빙 스킬 포 라이프



위시베어 프로젝트



포드 인터십

CONNECTING COMMUNITIES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전 세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요즘, 소통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포드는 이동수단을 선도하며 자동차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브랜드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환경과 문화를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포드의 사회공헌 활동은 환경, 문화, 봉사 등 다방면으로 이루어진다.

포드는 특히 환경을 최우선으로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적인데, 지난 수년간 전 세계 포드자동차 생산 시설에서 발생하는 물 사용량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준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자동차 한 대 생산 시 사용하는 물의 양을 2009년 대비 40%나 절감했다. 글로벌 생산 시설에서 차량 한 대를 생산하는 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향후 2025년까지 30% 감소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환경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포드는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환경문제에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포드는 자동차 업계 최초로 에티스피어 인스티튜트가 주관하는 '세계에서 가장 윤리적인 기업(World's Most Ethical Company)'에 7년 연속 선정됐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함께 동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포드는 다양한 사회공헌과 기부 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특히 1949년에 설립한 '포드재단'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구 생태계와 환경보호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포드 환경 프로그램(Ford Motor Company Conservation & Environmental Grants)'을 비롯해 안전 운전을 위한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드라이빙 스킬 포 라이프(Driving Skills for Life)', 매년 9월 전 세계 20만 명 이상의 포드 임직원들이 다양한 자원봉사를 펼치는 '글로벌 자원봉사의 달(Global Month of Caring)'을 진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포드 드라이빙 드림 투어(Ford Driving Dreams Tour)', '포드 커뮤니티 챌린지(Ford Community Challenge)' 등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 활동

을 펼치고 있다.

포드코리아는 2015년부터 매년 9월 '글로벌 자원봉사의 달'을 맞아 포드코리아 임직원 모두가 봉사 및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포드코리아 전 임직원과 딜러사가 함께 '위시베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포드코리아 임직원뿐 아니라 포드 공식 딜러사와 포드 공식 금융사인 아주캐피탈이 함께 환아들을 위한 소원 성취 공인형을 제작해 전달한 데 이어 아동들의 병동 생활에 필요한 위시베어 쿠션을 제작해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위시베어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해에만 1300만 원을 기부했으며, 앞으로도 국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약속했다.

2016년에 론칭한, 안전한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드라이빙 스킬 포 라이프'는 참여율이 높은 가운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2002년에 시작해 16년간 지역사회 중심으로 환경운동을 펼치는 개인과 단체를 후원하는 포드 환경 프로그램은 환경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 창출을 인정받으며 그 지속성과 영향력을 높이고 있다. 지난 11월에 진행된 2017년 포드 환경 프로그램의 후원자를 발표하고 후원금을 전달하는 '포드 그랜츠 나잇(Ford Grants Night)'에서는 물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선정한 일곱 개 팀 발표와 함께 활동을 살펴 보면서 토크쇼 형식으로 환경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2014년부터는 포드코리아와 공식 딜러사들이 협력하는 산

학협력 프로그램 '포드 인터십'을 진행하고 있다. 포드 인터십은 자동차 관련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연계를 통한 현장 실습 등의 교육을 제공해 자동차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는 데 기여한다. 포드자동차는 지금까지의 활동에 안주하지 않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을 강화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확장 및 발전을 위한 행보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

2017 포드의 글로벌 사회공헌 현황	
	\$36.8M 지역 커뮤니티 지원
	\$18.4M 교육 지원
	\$7.8M 안전 운전 지원
	TOTAL \$63M
* 포드자동차는 총 6300만 달러(약 675억 원)를 전 세계의 사회공헌 활동에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LAST AUCTION HERO

시대가 흐를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차야말로 진정 훌륭한 자동차다.
자동차 경매는 가치 있는 자동차를 가리는 통과역레다. 금액으로 매긴 가치에 역사와 전통이 투영된다.

WRITER 지현성

전통은 시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얼마나 역사적인 일을 해냈는지에 따라 전통의 깊이도 그만큼 달라진다. 오랜 세월 자동차를 만들어온 자동차 회사가 많지만, 역사적 평가에 차이가 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빛나는 전통을 드러내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사에 길이 남을 차를 얼마나 만들었는지도 그중 하나다. 디자인이 멋지거나, 획기적 기술을 시도하거나, 유행을 뒤바꾸거나, 놀랄 만한 판매량을 기록하거나... 주목받는 이유는 다양하다. 그저 유명하다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전통적 가치를 평가하기가 쉽지 않은데, 객관적 방법으로 경매가 있다. 어떤 차가 얼마에 낙찰됐는지 보면 그 차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 클래식카 경매가 열리고, 저마다 가치를 인정받으며 낙찰가 기록을 세워나간다. 포드는 100년 넘는 역사를 이어온 유서 깊은 브랜드다. 모델 T로 자동차 대량생산의 길을 열었고, 1960년대에 스포츠카의 아이콘인 머스탱을 출시했다. GT 경주차로 르망을 제패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많은 모델이 있다. 포드가 선보인 자동차도 경매시장에서 높은 낙찰가를 기록하며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는다. 고가에 낙찰된 포드 모델을 보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만하다. 경매를 통해 포드의 역사와 전통의 가치를 알 수 있다.



GT40 걸프/미라지(1968)
1100만 달러, RM 옥션, 2012

GT40 중에서도 협찬사 걸프의 리버린 하늘색과 오렌지색 스트라이프를 입힌 모델이다. 1967년 스파 내구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한 화려한 전적의 자동차다. 당시 이 경주차는 세 대 만들었는데, 그중 두 대가 남았다. GT40 걸프는 스티브 매킨이 주연한 영화 <르망>(1971)에서 촬영용 자동차로 쓰였다. 스티브 매킨이 빠르게 달리는 장면을 원했고, 경주 장면을 담기 위해서는 촬영하는 자동차도 그만큼 빨라야 했다. 경주차를 찍기 위해 경주차가 필요했고, GT40이 낙점됐다.

GT 프로토타입(1964)
750만 달러, 메컴 옥션, 2014

포드 GT의 역사는 유명하다. 모터스포츠에서 유럽 브랜드를 꺾기 위해 르망 24시간에 도전했고,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뒀다. 결승선에서 쟁쟁한 유럽 라이벌을 제치고 포드 GT40이 1, 2, 3위로 나란히 들어오는 모습은 역사 속 명장면으로 꼽힌다. GT40 개발을 위해 여러 대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는데, 그중 유일하게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는 차가 아직도 남아 있다. 전 사용이 아닌 실제로 달릴 수 있는 차라 가치가 더욱 높다.

GT(2017)
255만 달러, 바렛-잭슨 옥션, 2018

2세대 GT는 1세대 이후 공백기를 깨고 2016년에 등장했다. 전통적 모습을 강조한 1세대와 달리 미래적 모습으로 재해석해 남다른 개성을 보여준다. 기본 가격만 40만 달러가 넘고, 600마력이 넘는 출력을 뽐내내는 슈퍼카다. 한 사업가가 자선기금 모금을 위해 내놓았다. 특히 경매에 나온 모델은 푸른 계열 색상인데, 한정 수량이라 희소가치가 높다.

헬비 EXP500 그린 호넷(1968)
180만 달러, 바렛-잭슨 옥션, 2013

패스트백과 컨버터블을 위주로 나오던 머스탱을 노치백으로 개조한 프로토타입. 라임 그린 컬러가 인상적인 스페셜 모델이다. 2013년 바렛-잭슨 경매에서 180만 달러까지 올랐지만, 최소 가격에 미치지 못해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가치는 180만 달러 이상으로 평가받는다.

헬비 GT500 슈퍼 스네이크(1967)
130만 달러, 메컴 옥션, 2013

머스탱 개조 모델 중 슈퍼 스네이크는 특별한 차로 여겨진다. 스트라이프가 세 줄이고 후드 위에는 넓은 흡입구를 뚫어 특별한 고성능 모델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포드 고성능 스페셜 모델을 담당하는 헬비가 손본 GT500 중에서도 헬비가 특별히 더 관여해 만들어내는 모델이다. 1967년 모델은 당시 르망에서 우승한 GT40의 엔진을 가져와 강한 성능을 뽐냈다.

머스탱 엘리노어(1967)
107만 달러, 메컴 옥션, 2013

머스탱 엘리노어는 머스탱 마니아 사이에서도 드림카로 꼽힌다. 엘리노어는 영화 <식스티 세컨즈>에 나오면서 스타가 되었다. 판매 모델이 아닌, 영화 촬영을 위해 특별히 제작했다. 모두 11대를 만들었고, 달리가 가능한 차는 그중 세 대다. 그나마 두 대가 다리 위 점프 장면 촬영 중 파손돼 온전한 차는 한 대에 불과하다. 참고로 머스탱은 가장 인기 있는 영화 소품 중 하나다. 1964년 데뷔 이후 영화나 드라마에 출연한 횟수는 3000번이 넘는다. 특히 엘리노어가 <식스티 세컨즈>에 나온 뒤 수많은 엘리노어를 본뜬 레플리카가 등장했다.

1969 브롱코
50만 달러, 바렛-잭슨 옥션, 2013

포드 브롱코는 머스탱과 비슷한 시기인 1966년에 등장했다. 익스플로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차로 초창기 SUV라고 보면 된다. 당시에는 픽업트럭에 덮개를 씌운 형태였다. 오프로드 주파력이 뛰어난 터프한 SUV로 큰 인기를 끌었다. 데뷔 후 1977년까지 팔린 대수는 23만 대.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모델이라 포드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내놓는다는 소문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2004년에는 북미 국제 오토쇼에서 콘셉트카로 나오기도 했다. 최근 포드는 'SUV와 트럭 라인업 강화'를 위해 2020년에 브롱코를 내놓겠다고 발표했다.

GT 헤리티지 에디션(2006)
49만5000달러, 바렛-잭슨 옥션, 2018

2004년, 포드는 GT40의 영광을 21세기에 되살리기 위해 GT 모델을 부활시켰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생산한 GT

는 4000대 남짓이라 희소가치가 높다. 그중에서도 걸프 리버린을 입힌 헤리티지 에디션은 1960년대 GT40 걸프 경주차를 가리는 모델이다. 제작 대수는 343대. 비싼 가격을 유지하며 컬렉터들에게 인기가 높다.

머스탱 불릿(2018)
30만 달러, 바렛-잭슨 옥션, 2018

포드는 머스탱 특별 모델로 불릿을 종종 선보여왔다. 1968년 스티브 매킨이 주연한 영화 <불릿>에 나온 머스탱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머스탱이 나오는 장면은 영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자동차 추격 장면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1월 북미 국제 오토쇼에는 현재 머스탱 모델을 기반으로 한 불릿 모델이 등장했다. 바렛-잭슨 경매에 나온 불릿은 양산 1호차. 경매 금액은 전액 보이즈 리퍼블릭이라는 단체를 위한 자선기금으로 쓰인다.

머스탱 역대 옥션 순위
포드 모델 중 옥션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모델은 GT와 머스탱이다. 오랜 역사를 이어왔고 상징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머스탱은 스포츠카의 아이콘으로 통하기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기본 모델은 물론 다양한 변형 모델이 등장해 희소가치도 높다. 머스탱 오너라면 계속 소유할 만하다. 언젠가는 가치가 오를 테니까.

- 1 130만 달러, 헬비 GT 500 슈퍼 스네이크(1967)
- 2 107만 달러, 머스탱 엘리노어(1967)
- 3 99만 달러, 헬비 GT350R(1965)
- 4 75만 달러, 헬비 GT500 컨버터블(1969)
- 5 65만 달러, 헬비 GT500 머스탱 쿠페 No. 001(2007)
- 6 61만 달러, 머스탱 보스 429(1969)
- 7 60만 달러, 헬비 GT 머스탱(2007)
- 8 55만 달러, 머스탱 헬비 GT500 KR(2008)
- 9 55만 달러, 머스탱 보스 429(1969)
- 10 53만 달러, 헬비 GT350(1965)

* 이 칼럼은 글쓴이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ONLY ONE PONY

머스탱의 그릴 중앙에 자리한 역동적인 아메리칸 포니 엠블럼은 도로 위를 질주하는 머스탱을 상징한다. 자유롭고 강렬하며 매력적인 포니 엠블럼에 자신만의 개성을 불어넣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포니 아이템을 완성할 수 있다.

EDITOR 김민정

퍼스널라이즈는 '개인 맞춤'이라는 의미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품을 선호하는 하나의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2018 뉴 머스탱은 지금까지 선보여온 차량 중 개인 맞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 시스템을 갖췄다.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 운전 감각과 배기음, 컬러 등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고급스러운 색감이 돋보이는 11개 외장 컬러와 12인치 LCD 디지털 계기판을 설정 가능하며, 각종 게이지 컬러도 메인 컬러와 서브 컬러 30가지 중 선택할 수 있다. 또 개인화된 시스템을 강화해 서스펜션과 스티어링, 배기음 등 세부적 기능을 운전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포드자동차는 2018 뉴 머스탱을 출시하면서 이러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별한 나만의 포니 아이템 만들기를 제안한다. 머스탱 팬이라면 페이스북을 통해 머스탱을 대변하는 포니를 디자인해 나만의 배지, 티셔츠, 광고판을 만들 수 있다. 먼저 다양한 개인화 기능을 탑재한 2018 뉴 머스탱의 론칭을 축하하기 위해 팬들은 페이스북에서 자신만의 스타일로 새로운 머스탱 포니를 디자인한다. 이렇게 만든 포니 작품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한 뒤 티셔츠나 배지 등에 프린트하면 나만의 아이템이 완성된다. 포드자동차 그룹 마케팅 매니저 코리 홀터(Corey Holter)는 "이러한 활동은 머스탱 팬이 어디에서나 자신만의 맞춤형 포니를 만들고 수백만 명이 잠재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며 나만의 포니 아이템 만들기에 동참할 것을 권했다. 또 3월부터 6월까지의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 간판에서 포니 디자인을 만날 수 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페이스북 검색창에 'Ford Mustang'을 입력하거나 웹사이트(www.Facebook.com/FordMustang)에서 확인할 수 있다.

THE TRUE SERVICE

품질을 넘어 마음이 담긴 진정한 서비스가 남다른 가치를 만든다. 지난 한 해 고객 만족의 감동을 선사한 서비스 부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치른 '2018 포드 아카데미' 소식과 함께 포드의 서비스 테크니션이 전하는 봄철 차량 관리법을 알아본다.

EDITOR 김민정

새로운 기능과 향상된 성능을 탑재한 신모델이 앞다퉈 출시되는 자동차 시장에서 감동과 가치를 전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는 차량 선택의 기준이 된다. 포드는 편의와 안전만을 생각하며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그 일환으로 지난 2월 7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2018 포드 아카데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올해의 세일즈와 마케팅 전략을 발표하고, 지난 한 해 세일즈·서비스 등 각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직원들을 시상했다. 서울 드래곤 시티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포드코리아 임직원을 비롯해 포드 공식 판매 딜러사인 선인자동차, 프리미어모터스, 더파크모터스, 이한모터스의 세일즈 컨설턴트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더욱 뜻깊었다. 더불어 지난 한 해 많은 고객을 감동시킨 서비스 부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다. 2017 고객 서비스 대상 수상자인 선인자동차 일산지점 배중훈 대리는 "고객을 대할 때는 항상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타는 차라고 생각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객의 차를 정비하고 서비스한다는 마음으로 원칙을 세우고 지켜가고 있습니다"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다. 포드의 서비스 전문가들은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완벽한 가치를 완성하는 서비스를 위해 오늘도 정성을 다하고 있다.



하만도 팀장 프로필

2018년 선인자동차 기술지원팀장 (DTT 팀장) 재직 중
2017년 선인자동차 기술지원팀장 발령
2017년 포드서비스 최우수 정비사 입상
2017년 Ford Technical Skills Competition 우승
2016년 선인자동차 DTT 발령 (Dealer Technical Trainer)
2013년 Ford Master Technician 취득
2006년 선인자동차 입사
2005년 현대자동차 산학협력 경진대회 1위

봄철 차량 관리 꿀팁

매서운 추위가 가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봄이면 자동차도 봄맞이 정비가 필요하다. 포드의 서비스 테크니션 하만도 팀장이 전하는 봄철 차량 관리법을 소개한다.

차량 내·외부 세차 겨울을 보내는 동안 눈과 함께 차체에 남아 있을 염화칼슘을 외부 및 하체 세척을 통해 제거해야 차량이 부식되지 않는다. 실내 환기를 하지 못해 쌓인 실내 이물질은 내부 세차로 제거한다.
항균 필터 교체 내·외부 세차 후에는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를 대비해 실내 항균 필터를 점검하고 교체하는 것이 좋다. 항균 필터는 6개월마다 점검 또는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전이라도 냄새가 나면 바로 교체해야 한다. 차량 주행 빈도와 대기 환경에 따라 항균 필터를 자주 점검하고 교체한다.
와이퍼 블레이드 점검 겨울철 눈과 얼음으로 손상된 와이퍼 블레이드는 점검 후 교체하는 것이 좋다. 황사나 미세먼지가 발생한 날에는 주행 전 와이퍼 상단에 쌓인 이물질을 제거한다.
타이어 점검 타이어는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 좋지만, 한파로 인한 외부 온도 변화가 공기압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기압 점검을 해야 한다.
*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차량 전문가에게 점검 또는 관리를 받는 것이 좋다. 가까운 포드서비스센터를 찾아 전문가에게 직접 점검을 요청할 것.



머스탱 오너 한석준 아나운서

BETWEEN MACHO AND GENTLE

만능 스포츠맨이자 강인한 남성다움과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동시에 지닌 한석준 아나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시청자의 마음을 사로잡아 전성기를 맞고 있는 그를 만났다.

EDITOR 김민정 PHOTOGRAPHER 심주호 HAIR & MAKEUP 주만구 PLACE 가나아트갤러리(02-720-1020)

봄비가 내려 촉촉이 땅을 적시던 어느 오후, 고즈넉한 평창동 가나아트갤러리에서 한석준 아나운서를 만났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데다 워낙 마당발인 그는 평창동의 많은 갤러리와 카페, 레스토랑 주인들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래서인지 촬영하는 동안에도 지나가는 동네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느라 분주했다. “워낙 사람을 좋아해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면 좋잖아요.” 이웃들과 지난주 동네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마치 동네 반장 같았다.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면서 따뜻한 미소와 친근한 어투로 화답하는 모습이 무척 소탈해 보인다. 여유롭고 정감 있는 배려와 매너가 몸에 밴 이 남자, 매력적이다.

특유의 배기음과 진동으로 나를 깨우는 머스탱

빨간 6세대 머스탱 컨버터블 오너인 그는 포드자동차 멤버십 매거진 인터뷰라 흔쾌히 응했다며, 머스탱과 포드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머스탱을 구입한 이유를 묻자 금세 명쾌한 답변이 돌아왔다. “왜 머스탱을 택했냐고요? 머스탱은 머스탱이지요. 선택할 때도 크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머슬카 하면 머스탱, 스포츠카의 대표 주자니까요.” 포드자동차 창립자이자 자동차의 왕이라 불리는 헨리 포드의 위인전을 읽었고, 사회에서 이동수단의 혁신을 일으킨 자동차를 가장 먼저 생산한 포드자동차의 머스탱이기 에 망설임이 없었다고.

“머스탱의 지붕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저속으로 드라이브하는 것을 즐겨요. 천천히 달려도 머스탱만의 매력을 느낄 수 있거든요. 달릴 때 큰 배기음과 진동이 몸 뒤쪽에서 울리며 저를 막 미는 것 같아요. 액티브한 것을 좋아하는데, 마치 저를 깨우는 듯한 느낌이 들어 기분이 상쾌해요.” 빨간 머스탱을 타고 경쾌한 배기음을 내뿜으며 아스팔트 위를 달리는 그의 모습을 상상하니 젠틀한 첫인상과는 또 다른 거친 남성미가 느껴진다.

“머스탱은 차체의 앞코가 길고 낮아 더 매력적이에요. 운전석에서 바라보면 앞코가 너무 길어 가끔 낮설 때도 있지만요. 날마다 새롭다고나 할까요.(웃음) 클래식한 실내 디테일과 멋진 외관을 보면 내가 이 차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이 생겨요.”



재치와 센스를 겸비한 대세 아나운서

2003년 29기 공채 아나운서로 KBS에 입사한 그는 2015년에 프리랜서로 전향했다. <연예가중계>, <위기탈출 넘버원>, <1대 100>, <생생 정보통> 등 시청자층이 두터운 굵직한 프로그램은 물론 수준 높은 영어와 중국어 실력으로 여러 외국어 방송의 진행을 맡기도 했다. “아나운서는 예능, 뉴스, 교양, 다큐멘터리 등 분야별로 특성이 다릅니다. 저는 정보성 강한 예능, 교양 중에서는 즐거운 교양 프로그램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렵고 딱딱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부드럽게 풀어 시청자에게 좀 더 쉽고 재밌게 전달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해요.”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정보를 재미있게 전달하는 <1대 100>, <우리말 겨루기> 등 퀴즈 프로그램이라고. 요즘은 tvN의 <프리한 19>, MBN의 <아궁이>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프리한 19>에서는 절친으로 알려진 오상진, 전현무 두 아나운서와 함께 화려한 입담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높은 시청률에 너무나 감사드려요. 셋이 너무 잘 맞아 결과도 좋다고 생각해요. 오상진 씨와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궁금해하는 스타일이고 전현무 씨는 관심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편인데, 각자 잘 맞는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곤 하죠.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웃다 보면 <프리한 19>는 4시간씩 녹화를 해요.”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는 몸으로 뛰는 다큐멘터리다. “예를 들면 요트 면허를 딴 뒤 우리나라에서 칠레 산티아고까지 요트를 타고 가거나 만약 남북한 길이 열린다면 부산에서 마드리드까지 떠나는 여정을 담는, 몸으로 도전하는 다큐멘터를 해보고 싶어요.” 아나운서로서 진행뿐 아니라 얼마 전 드라마 <키스 먼저 할까요>에 Cameo로 출연한 그는 연기에 대한 욕심도 내비쳤다. “드라마는 역시 예능보다 어려워요. 이번 촬영 때 10m 정도 걸어오는 장면을 여섯 번이나 반복했는데, 낮간지러워 혼났습니다. 전문가 선생님께 연기를 배우고 있어요. 기회가 되어 제게 맞는 배역이 있다면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2018 뉴 머스탱 5.0 GT의 첫 시승

인터뷰를 마칠 즈음 2018 뉴 머스탱 5.0 GT가 도착했다. 얼마나 근사하게 바뀌었는지 궁금해하던 그는 2018 뉴 머스탱과 마주하자 눈을 떼지 못했다. 이제 막 인증을 마친 2018 뉴 머스탱 5.0 GT의 첫 시승자가 된 그는 잠깐이지만 평창동 일대를 달린 뒤 감탄사를 연발했다. “왜 머스탱 정말 좋아졌네요. 깜짝 놀랐어요. 전문가가 아니지만 서스펜션이 업그레이드된 것 같아요. 특히 오버스티어가 덜 발생하는 안정적인 코너링이 인상적이었어요. 10단 기어는 저속 기어를 세분화한 듯해요. 저속에서도 기어가 5단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기어를 정밀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해 연비와 효율성을 높인 것 같아요. 상상한 것 이상으로 업그레이드됐네요. LED 라이트와 외관도 유선형으로 날렵해진 느낌이고요. 2018 뉴 머스탱, 진짜 탐나네요.” 그는 자동차에 대해 잘 모른다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수상스키, 스노보드를 즐기는 만능 스포츠맨으로 소문난 그는 요즘 드라이브를 하며 여가를 활용한다. 가만히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격이라 자동차, 바이크, 등산 등을 즐기는데 조만간 자전거 라이딩에 나설 계획이라고. 다재다능한 그는 아나운서라는 직업 외에도 '지니 더 바틀' 뷰티 브랜드를 론칭하고 <시그널>, <굿 닥터>, <김과장> 등의 드라마 대본집을 출간한 출판사를 운영하는 등 다방면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그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라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자신을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일, 가족, 일상 때문에 그렇지 못하잖아요. 가장 즐겁고 좋아하는 것,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되뇌며 제 자신에게 충실하려 노력해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일과 여가 생활을 적당히 타협하면서 도전을 즐기는 그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의 행보가 자못 기대된다.

혁신적 기술력을 탑재한 디지털 신제품을 통해 생활 전반의 트렌드와 가까운 미래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이번 시즌에 주목해야 할 디지털 신제품을 소개한다.

EDITOR 김민정 PHOTOGRAPHER 류창렬 RETOUCHER 김권석
COOPERATION AUDIO-TECHNICA · BOSE(02-3446-3003),
CANON(1588-8133), DJI(02-323-8730), GOPRO(070-8805-0859),
LG(1544-7777), VOICE CADDIE(1577-2862), XBOX(1577-9700)

NEW STUFF



1 오디오테크니카의 'ATH-S200BT'는 블루투스 4.1을 통해 손실 없이 최대 10M의 음원 전송이 가능한 무선 헤드폰이다. 190g의 가벼운 무게로 착용감과 휴대성을 높였으며 최대 40시간 연속 재생이 가능하다. 선명한 고음과 박력 있는 중저음을 재생하는 40mm 드라이버로 높은 품질의 사운드를 제공한다. **AUDIO-TECHNICA**
2 콘솔 게임기기 중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Xbox One X'는 1300개 이상의 게임과 220개 이상의 독점작을 4K 환경에서 즐길 수 있다. 6테라플롭스 GPU에 12GB GDDRS 메모리, 800만 이상의 픽셀, 하이 다이내믹 레인지(HDR), 4K UHD 블루레이 등을 탑재했다. 프리싱크 적용으로 화면 끊김으로 인해 게임 몰입도가 떨어지는 현상을 최소화했다. **XBOX**



1 2018년형 'LG 그램'은 새로운 '인텔 8세대 쿼드코어 CPU'를 탑재해 성능이 기존보다 40% 향상됐다. DDR4보다 처리 속도가 13% 빠른 최신 DDR4 쿼드코어 메모리를 탑재하고, 필요에 따라 메모리를 추가할 수 있도록 확장 슬롯을 적용했다. 13.3인치 제품은 965g, 14인치 제품은 995g, 15.6인치 제품은 1095g이며 배터리는 13.3인치 제품 기준 최대 31시간 사용 가능하다. 동영상 재생 시간도 최대 23시간 30분이며,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초경량, 대용량 배터리 노트북의 장점을 모두 갖췄다. **LG**

2 사랑스러운 컬러의 'EOS M100 핑크 X 와니' 에디션은 가방 브랜드 와니(Kwani)와 함께 컬래버레이션 패키지로 선보였다. 미러리스 카메라 'EOS M100'는 콤팩트한 크기와 약 266g의 가벼운 무게로 2420만 화소의 APS-C 타입 이미지 센서, 영상 처리 엔진 디지크 7(DIGIC 7), '듀얼 픽셀 CMOS AF'를 탑재해 화사한 색감의 피사체를 선명하게 담을 수 있다. **CANON**



1 골프 GPS 레이저 거리 측정기 '보이스캐디 SL1'은 GPS와 레이저의 융합 기술인 GPS 핀 어시스트 기능을 구현했다. GPS 좌표를 이용해 한 번의 측정으로 핀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고 손 떨림에 구애받지 않고 거리 측정이 가능하다. 또 외부 LCD창으로 안개 등 레이저 사용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 **VOICE CADDIE**
2 4K 카메라를 장착한 접이식 드론 '매빅 Air'는 430g으로 작고 가벼워 휴대가 간편하다. 드론 AI 기술을 통해 비행 중 주변 환경을 3D 맵으로 구현하고 장애물을 피하며 최대 16개의 피사체를 자동으로 감지해 달리는 물체를 추적한다. 머신 러닝 기술로 조종기 없이 손으로 조종할 수 있는 스마트캡처는 6m 범위에서 손짓만으로 이륙, 팔로, 사진촬영, 녹화, 말기, 당기기, 착륙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DJI**



1 360도 VR 카메라 '퓨전'은 동영상과 1800만 화소로 촬영할 수 있다. 수심 5m까지 방수 가능하며 동영상 안정화 기능을 갖췄다. 스마트폰 전용 앱을 이용하면 원하는 장면을 골라 16:9 평면 영상으로 만드는 오버랩쳐 기능도 있다. **GOPRO**
2 무선 이어폰 '사운드 스포츠 프리'는 선 없이 이어폰 유닛만 있는 디자인으로 야외 스포츠 활동을 할 때도 파워풀한 사운드를 감상할 수 있다. 땀과 물에 강한 IPX4 등급의 생활 방수 기능과 최대 15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성능을 제공한다. **BOSE**
3 '사운드링크 마이크로' 블루투스 스피커는 손바닥 정도의 작은 사이즈로 IPX7 이상의 완벽한 방수 기능과 실리콘 외관을 견고하게 설계해 물과 충격에 강하다. **BOSE**
4 하이브리드 골프 워치 'T6'는 스마트 샷 디스턴스 기능으로 별도의 터치 없이 샷을 인식해 자동으로 비거리 확인이 가능하다. 한 번의 터치로 원하는 지점까지 비거리와 핀까지 남은 거리를 확인해 정확하고 전략적인 페어웨이 공략을 돕는다. **VOICE CADDIE**

두 바퀴로 깨우는 질주 본능

MOTOR CYCLE

굳이 스피드를 즐기지 않는 이라도 한 번쯤은 모터사이클을 타고 일상에서 탈파해 신나게 달리고 싶은 욕구를 느껴봤을 것이다. 심장을 울리는 배기음과 슈퍼카 같은 가속력, 다이내믹한 코너링으로 바람을 가르며 달리다 보면 가슴이 탁 트인다. 지금이 바로 숨겨둔 모터사이클 질주 본능을 깨울 시간이다.

EDITOR 김민정 COOPERATION HARLEY-DAVIDSON(02-796-8279)

참고 서적 《초보자를 위한 모터사이클 입문》 현충화 저, 미래라이프 출판

앞뒤 두 바퀴에 원동기를 장치해 그 동력으로 바퀴가 돌아가게 만든 탈것. 즉 자전거에 엔진을 장착한 것을 ‘모터사이클’이라고 한다. 모터사이클 하면 대부분 두건을 쓴 거친 남성이 굉음을 내며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질주하거나 점프하면서 앞바퀴를 들고 모기 부리듯 달리는 영화 속 장면이 떠오른다.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 현실의 도로에서는 헬멧과 안전장비를 갖춘 뒤 그 어떤 돌발 상황도 발생해도 제어 가능한 속도로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겨야 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모터사이클을 탄다고 하면 사고 걱정부터 하기 마련이다. 물론 교통수단이기에 사고가 발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모터사이클을 탄다고 해서 무조건 대형 사망 사고가 난다고 단정 짓는 건 잘못된 생각이다. 라이더들이 헬멧만 잘 착용해도 사망 사고는 지금보다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기초적인 안전교육과 안전장비만 철저히 갖춰도 훌륭한 이동수단이 되는 모터사이클은 특히 우리나라처럼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더없이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모터사이클 라이딩 첫걸음

모터사이클은 노면에 따라 크게 ‘온로드(On Road)’와 ‘오프로드(Off Road)’, 온 · 오프로드를 모두 달리기 위한 ‘듀얼 퍼포즈(Dual Purpose)’로 나뉜다. 모터사이클 입문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면허 취득이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다면 125cc 이하의 모터사이클(원동기장치자전거)을 운전할 수 있고, 125cc를 초과하는 모터사이클(이륜자동차)을 타려면 ‘2종 소형’이라는 별도의 면허가 필요하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원동기’)든 이륜 자동차든 별도로 면허를 따야 한다. 모터사이클을 탈 때는 신체가 외부에 노출되기 때문에 팔꿈치와 척추, 무릎보호대가 내장된 라이딩 의류 및 장갑, 헬멧, 부츠 등 안전장비는 필수다. 초보자가 라이딩 테크닉을 단기간에 익히려면 모터사이클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처음부터 대배기량을 타는 것보다 125cc로 6개월 정도 연습한 뒤 250cc, 400cc, 600cc, 1000cc로 한 단계씩 높이는 것이 좋다.

기본적인 라이딩 테크닉

초보자들은 시동을 켜기 전, 모터사이클의 무게와 중심을 파악하기 위해 8자 돌기 연습부터 하는 것이 좋다. 라이더의 힘만으로 엉덩이를 시트 옆에 붙이고 핸들을 돌리면서 8자를 그리며 왼쪽과 오른쪽 코너를 돌면서 넘어가지 않도록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자연스럽게 8자 돌리기가 된다면 비로소 시동을 걸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국내 도로는 언덕과 코너, 과속방지턱과 공사 구간 등 장애물이나 위험 요소가 많은 편이다.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온로드 레이서처럼 도로를 달리려고 하지만 그런 자세는 로드레이스 전용 경기장에서나 어울린다. 모터사이클 라이딩의 기본 자세는 승마 자세와 유사하다. 모터사이클을 애마라고 부르는 건 실제로 말을 타는 것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승마장 기수들은 말을 타는 허리와 엉덩이, 팔을 격하게 움직이지만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일정하게 전방을 주시하면서 달린다. 모터사이클도 마찬가지다. 머리가 흔들리면 시야 또한 흔들리므로 좋지 않다. 라이더의 시선은 회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모터사이클이라도 결국에는 라이더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시선을 가 고자 하는 방향에 두어야 한다.



봄철 추천 라이딩 코스

청와대 앞길 도시 레이서들에게 추천하는 시내 코스로 주택가 골목길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저배기량 바이크 라이딩을 권한다.

짧은 청와대 앞길을 지나 삼청동 감사원 옆길을 오르면 한적한 외룡공원에 다다른다.

파주 화석정 울곡 이이가 자주 찾아와 제자들과 풍류를 즐긴 곳으로 임진각을 끼고 잘 닦인 도로와 고즈넉한 풍경이 아름답다.

강변 따라 달리는 퇴촌 퇴촌면과 남종면 일대 팔당호 주변 도로는 호수를 끼고 조성해 수려한 풍광과 드넓은 호수가 가슴을 탁 트이게 한다. 특히 벚꽃이 필 무렵에는 환상적 풍경을 자랑한다.

전남 곡성군 메타세쿼이아길 곡성읍내 진입로에 위치한 메타세쿼이아길은 영화 <곡성>에서 주인공 중구가 딸을 오토바이에 태우고 달리던 장면을 촬영한 곳이다. 하늘로 쭉 뻗은 메타세쿼이아가 죽 늘어선 도로를 신나게 달릴 수 있다.

할리 데이비슨이 전하는 모터사이클 선택 TIP

바이크 선택 시 남녀를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각 라이더의 라이딩 실력이나 신체 조건, 라이더의 개성에 맞는 것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바이크에 앉아보고 오랜 시간 편안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1 시트고(Seat Height)

시트고는 지상에서 모터사이클 시트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시트고에 따라 라이더가 모터사이클 시트에 앉았을 때 두 다리를 바닥에 안정하게 착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시트고는 라이더가 바이크를 구매할 때 가장 결정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자신의 신장에 적합한 시트고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2 핸드 포지션(Hand Position)

핸드 포지션은 라이더에게 시트 높이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적합한 포지션을 선택하면 라이딩 시 조작이 용이해 편안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다. 라이더의 핸드 포지션을 결정하는 요소는 핸들 바다. 핸들 바의 높이와 너비, 몸과의 거리가 적정해야 라이더가 핸들을 편안하게 잡고 바이크를 쉽게 제어할 수 있다.

3 풋 포지션(Foot Position)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풋 포지션이다. 핸드 포지션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풋 포지션의 모터사이클은 편안한 라이딩을 제공할 뿐 아니라 전체 라이딩 포지션을 좌우한다. 라이더가 발을 앞쪽으로 뺄 뻤을 수 있는 풋 포지션은 오랜 시간 라이딩 시 편안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다.

FORD DEALER NEWS



포드 공식 딜러사 프리미어모터스, 제주 신규 서브딜러 계약 체결 진행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의 공식 딜러사인 프리미어모터스가 제주도에서 포드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운영할 신규 서브딜러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제주 신규 서브딜러 계약 체결을 통해 프리미어모터스는 제주도에서 보다 공격적인 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며, 향상된 수준의 서비스센터에서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프리미어모터스 김기호 대표는 “올해로 창립 6주년을 맞은 포드 공식 딜러사인 프리미어모터스는 이번 제주 신규 서브딜러 계약을 통해 제주도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더욱 높은 수준의 고객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포드 인천 중부 서비스센터 확장 이전 오픈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자사 공식 딜러사인 선인자동차가 포드 인천 중부 서비스센터(구 포드 인천 간석 서비스센터)를 인천 중구 신항동으로 확장, 이전해 오픈했다고 밝혔다.

확장 이전한 포드 인천 중부 서비스센터는 지상 4층으로 총면적 4768㎡ 규모이며, 포드 서비스센터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특히 오픈베이 9대를 갖춰 1일 최대 50대의 차량 정비가 가능하며, 포드코리아의 엄격하고 수준 높은 기술 교육을 이수한 전문 테크니션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포드 인천 중부 서비스센터는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 IC와 인접해 인천 지역 고객들의 접근성을 한층 높이는 동시에 수준 높은 고객 만족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선인자동차 장인우 대표는 “포드 공식 딜러사인 선인자동차는 새롭게 확장, 오픈한 인천 중부 서비스센터를 통해 인천 지역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FORD NEWS

EDITOR 김민정



2018 뉴 머스탱 사전 계약 실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4월 4일 대치 전시장에서 '2018 뉴 머스탱 미디어 쇼케이스'를 열고 다양한 기능을 탑재하고 매력적으로 업그레이드된 '2018 뉴 머스탱'을 공식 출시했다. 포드자동차의 아이콘으로 지난 2015년 초 올-뉴 모델 출시 이후 3년 만에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2018 뉴 머스탱'은 머스탱 고유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유지하면서도 한층 스포티한 외관을 갖췄다. 공기 역학성을 높이기 위해 후드와 그릴을 낮춰 더욱 역동적이면서도 안정감 있는 머스탱의 첫인상을 만들어냈다. 강렬해 보이는 헤드라이트는 다양한 LED 램프를 적용했으며, 후면에 새롭게 장착한 wing 타입 리어-스포일러는 머스탱 고유의 입체적 3분할 램프와 함께 포드 머스탱의 외관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퍼포먼스로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 2.3L 에코부스트 엔진을 업그레이드해 토크를 최적화했으며, GT 역시 진화한 5.0L V8 엔진으로 주행성과 파워를 높였다. 포드 최초로 10단 자동변속기를 적용해 더욱 신속한 변속은 물론 변속 응답성을 높였으며, 마그네라이드 댐핑 시스템(MagneRide® Damping System)과 더불어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도 최적의 주행성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2018 뉴 머스탱의 가장 큰 특징은 운전자의 취향을 고려한 '개인화'다. 12인치 LCD 계기반은 머스탱에 최초로 적용한 전면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운전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설정이 가능하다. 더불어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마이모드(MyMode)를 통해 서스펜션과 스티어링은 물론 배기음 등 개인의 취향에 맞는 주행 모드로 세팅할 수 있다.

포드는 이번 2018 뉴 머스탱을 통해 아메리칸 머슬카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2018 뉴 머스탱은 2.3L 에코부스트 모델과 5.0L GT 모델을 판매하며, 각각 쿠페와 컨버터블 보디를 선택할 수 있다.



2018 뉴 익스플로러 출시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강인하고 간결한 외관과 강력한 힘, 다양한 첨단 기능, 넓은 실내 공간 등 탁월한 기능과 경쟁력으로 수입 대형 SUV 시장을 선도해온 포드 익스플로러의 부분 변경 모델인 '2018 뉴 익스플로러'를 공식 출시했다.

1996년 국내 출시 이후 대형 SUV 시장을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지난 한 해 7인승 이상 대형 수입 SUV 시장에서 판매 1위를 기록한 익스플로러는 2018년형 익스플로러로 업그레이드되어 더욱 간결해진 디자인과 다양한 안전 · 편의 사양을 갖췄다.



'2018 포드 아카데미' 성료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2018 포드 아카데미' 컨퍼런스를 개최, 올해의 세일즈 · 마케팅 전략을 발표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세일즈 및 서비스 등 각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상식을 진행했다. 지난 2월 7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개최한 행사에는 포드코리아 임직원을 비롯해 포드 공식 판매 딜러사인 선인자동차, 프리미어모터스, 더파크모터스, 이한모터스의 세일즈 컨설턴트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18 포드 아카데미'는 포드코리아 정재희 대표이사의 신년 인사를 시작으로 2018 마케팅 계획 발표, 머스탱 스토리, 특강 등 세일즈와 서비스 부문 강화를 위한 다양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특히 올 2분기 페이스리프트 모델 출시를 앞둔 머스탱에 얽힌 이야기와 역사를 소개하며, 머스탱에 담긴 포드만의 철학과 가치관, 헤리티지 등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 큰 호응을 얻었다.



포드의 신모델이 소개된 2018 제네바 모터쇼

포드는 3월 6일(현지 시간) 개막한 '2018 제네바 모터쇼'에서 올-뉴 머스탱 불릿(All-New Mustang Bullitt)과 뉴 포드 엣지 ST(New Ford Edge ST), 뉴 KA+(New KA+) 등 포드 신모델을 선보였다.

올여름 유럽에 출시 예정인 올-뉴 머스탱 불릿은 스티븐 매킨이 주연한 영화 <불릿(Bullitt)> 50주년 기념 모델이다. 5.0ℓ V8 엔진을 탑재해 최고출력은 464마력, 최대토크는 54.0kg · m에 이르며, 영화에 등장한 '머스탱 GT'를 연상시키는 녹색에 크롬 재질로 꾸몄다.

뉴 포드 엣지 ST는 지난해 유럽에서 최대 판매량을 기록한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SUV) '포드 엣지'의 고성능 버전이다. 포드가 유럽에서 공식적으로 첫선을 보이는 뉴 포드 엣지 ST는 우수한 핸들링과 브레이크, 8단 변속기, 238마력의 최고출력을 자랑하는 2.0ℓ 에코블루 바이터보(2.0-litre EcoBlue Bi-Turbo) 디젤엔진을 탑재했다.

신형 KA+와 크로스오버 모델 KA+ 액티브도 선보였다. 싱크3(SYNC® 3)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동 센서 감지 와이퍼 등을 갖췄고, 소형임에도 내부 공간이 넉넉하다.

FORD LINEUP

*제원은 2018년 3월 기준



MONDEO

(신연비 방정식 적용)

	Trend	Titanium
엔진형식	2.0L TDCi 디젤엔진	2.0L TDCi 디젤엔진
트랜스미션	듀얼 클러치 파워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및 변속 패들	듀얼 클러치 파워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및 변속 패들
배기량(CC)	1,997	1,997
최고출력(ps/rpm)	180/3,500	180/3,500
최대토크(kg · m/rpm)	40.8/2,000	40.8/2,000
구동 방식	FWD	FWD
승차 정원(명)	5	5
전장X전폭X전고(mm)	4,870X1,850X1,490	4,870X1,850X1,490
공차 중량(kg)	1,678	1,678
복합 연비(km/L)	15.6(2등급)	15.6(2등급)
도심 연비(km/L)	14.2	14.2
고속도로 연비(km/L)	17.5	17.5
CO ₂ (g/km)	121	121

MUSTANG

(신연비 방정식 적용)

	2.3 EcoBoost® Premium	5.0 GT Premium
엔진형식	2.3L 에코부스트 엔진	5.0L Ti-VCT V8 엔진
트랜스미션	10단 자동변속기	10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2,261	5,035
최고출력(ps/rpm)	291/5,600(Coupe, Convertible)	446/7,000(Coupe, Convertible)
최대토크(kg · m/rpm)	44.9/3,000(Coupe, Convertible)	54.1/4,250(Coupe, Convertible)
구동 방식	RWD	RWD
승차 정원(명)	4	4
전장X전폭X전고(mm)	4,790X1,915X1,380(Coupe), 4,790X1,915X1,400(Convertible)	4,790X1,915X1,380(Coupe), 4,790X1,915X1,400(Convertible)
공차 중량(kg)	1,675(Coupe), 1,725(Convertible)	1,795(Coupe), 1,820(Convertible)
복합 연비(km/L)	9.4(4등급)	7.5(5등급)
도심 연비(km/L)	8.0	6.2
고속도로 연비(km/L)	12.0	10.1
CO ₂ (g/km)	179	227



TAURUS

(신연비 방정식 적용)

	SEL/Limited
엔진 형식	2.0L 에코부스트 I-4 엔진
트랜스미션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999
최고출력(ps/rpm)	243/5,500
최대토크(kg · m/rpm)	37.3/3,000
구동 방식	FWD
승차 정원(명)	5
전장X전폭X전고(mm)	5,155X1,935X1,545
공차 중량(kg)	1,890
복합 연비(km/L)	9.8(4등급)
도심 연비(km/L)	8.5
고속도로 연비(km/L)	12.0
CO ₂ (g/km)	174



KUGA

(신연비 방정식 적용)

	Trend	Titanium
엔진형식	2.0L 듀라토크 TDCi 디젤엔진	2.0L 듀라토크 TDCi 디젤엔진
트랜스미션	파워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파워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1,997	1,997
최고출력(ps/rpm)	180/3,500	180/3,500
최대토크(kg · m/rpm)	40.8/2,000	40.8/2,000
구동 방식	인텔리전트 AWD	인텔리전트 AWD
승차 정원(명)	5	5
전장X전폭X전고(mm)	4,525X1,840X1,690	4,525X1,840X1,690
공차 중량(kg)	1,850	1,850
복합 연비(km/L)	12.4(3등급)	12.4(3등급)
도심 연비(km/L)	11.3	11.3
고속도로 연비(km/L)	14.1	14.1
CO ₂ (g/km)	154	154



EXPLORER

(신연비 방정식 적용)

	2.3 AWD	3.5 AWD
엔진형식	2.3L 에코부스트 엔진	3.5L Ti-VCT V6 엔진
트랜스미션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셀렉트 시프트 6단 자동변속기
배기량(CC)	2,261	3,496
최고출력(ps/rpm)	274/5,500	294/6,500
최대토크(kg · m/rpm)	41.5/2,500	35.3/4,000
구동 방식	인텔리전트 4WD	인텔리전트 4WD
승차 정원(명)	7	7
전장X전폭X전고(mm)	5,040X1,995X1,775	5,040X1,995X1,775
공차 중량(kg)	2,195	2,240
복합 연비(km/L)	7.9(5등급)	7.6(5등급)
도심 연비(km/L)	6.8	6.6
고속도로 연비(km/L)	9.8	9.4
CO ₂ (g/km)	215	227



*위 연비는 표준 모드에 의한 연비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정비 상태 및 외기 온도에 따라 실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FORD NETWORK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서울 11개의
전시장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33개의
포드 공식 전시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와 공식 딜러는 전국
각지에 정비공장 및 킷서비스센터도 함께
운영하는 등 고객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2018년 3월 기준



SHOWROOM			
서울	대치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3	02-3442-2300
	신사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6 두산빌딩 1층	02-3444-1300
	서초 전시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63 진석빌딩 1층	02-535-3800
	미아 전시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67 동일하이빌뉴시티	02-6355-1000
	노원 전시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55 인산빌딩 1층	02-6226-1000
	동대문 전시장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림길 283	02-2246-2100
	강서 전시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12 영광빌딩 1층	02-2063-6300
경기	송파 전시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18	02-6928-3000
	방배 전시장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32	02-6929-3000
	영등포 전시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02-6941-3000
	마포 전시장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9	02-6420-1000
	일산 전시장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14	031-913-2200
	수원 전시장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3	031-221-7600
	분당 전시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81	031-714-2004
인천	평촌 전시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0	031-425-2212
	구리 전시장	경기도 구리시 경춘로 158 한화생명빌딩	031-8034-1000
	의정부 전시장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722	031-822-1000
충청	인천 전시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55	032-832-0001
	대전 전시장	대전광역시 서구 계룡로 650	042-823-2000
	천안 전시장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66	041-562-0007
부산	청주 전시장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2순환로 1778	043-287-0007
	부산 수영 전시장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54	051-758-0075
울산	부산 해운대 전시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5로 55 센텀큐빌딩	051-741-5114
	울산 전시장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28	052-261-3388
경남	창원 전시장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79-2	055-715-5000
대구	대구 전시장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9	053-766-2000
경북	포항 전시장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337	054-285-8899
광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226	062-515-1010
전북	전주 전시장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장동유통로 29-8	063-273-0005
강원	원주 전시장	강원도 원주시 차악로 1320	033-762-0040
	강릉 전시장	강원도 강릉시 강강로 2255번길 31	033-646-2300
	춘천 전시장	강원도 춘천시 춘천순환로 28	033-263-4200
제주	제주 전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132	064-759-9881

SERVICE			
서울	강북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림길 283	02-2216-1100
	강서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84	02-3661-0011
	양재 익스프레스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외로 18길 5	02-2057-8100
	서초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189	02-536-5150
	송파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례성대로 118	02-2039-3001
	북부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강북구 숭실로 277-4	02-6370-1000
	용산 서비스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24-4	02-6177-1000
경기	분당 서비스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81	031-701-7004
	일산 서비스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14	031-901-2888
	수원 서비스센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13	031-237-6340
	평촌 서비스센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80	031-360-1500
	의정부 서비스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722	031-8030-1000
	인천 중부 서비스센터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180번길 65	032-863-6080
	인천 구월 서비스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655	032-471-6080
충청	대전 서비스센터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624	042-226-7707
	천안 서비스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566	041-563-0009
	청주 서비스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2순환로 1778	043-288-0007
부산	부산 수영 서비스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62-9	051-758-0046
	부산 학장 서비스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로 243	051-715-2000
울산	울산 서비스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210번길 7	052-258-8004
	울산 익스프레스 서비스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28	052-227-6001
경남	창원 서비스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12길 18	055-715-3003
광주	광주 서비스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5	062-515-1020
대구	동대구 서비스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안심로 55길 22	053-963-0011
	대구 수성 서비스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9	053-766-0755
경북	포항 서비스센터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연일읍 동문로 76번길 12	054-281-7007
전북	전주 서비스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867	063-252-5400
강원	강릉 서비스센터	강원도 강릉시 강강로 2255번길 31	033-901-2004
	원주 서비스센터	강원도 원주시 차악로 1221-10	033-762-0041
제주	제주 서비스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남로 7	064-755-1474~5



당신의 공기를 아름답게
당신의 공간을 아름답게

MP-C20U
(차량/탁상용)

cado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M&S SOLUTION www.cadoair.co.kr 070.4373.8760

마이클앤선솔루션 02,3273,5446 /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816 / 롯데백화점 부산센텀점 051,730,3796 / 롯데백화점 부천중동점 032,320,7785 / 롯데백화점 대전점 042,601,2083 /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1945 / 롯데백화점 일산점 031,909,3084
롯데백화점 수원점 031,8066,0831 / 롯데백화점 광주점 062,221,1835 / 롯데백화점 창원점 055,279,3660 / 롯데백화점 부산동래점 051,668,4722 / 롯데백화점 부산분점 051,810,3682 / 롯데백화점 건대스타시티 02,2218,3968 / 롯데백화점 평촌점 031,8086,9719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02,3707,1754 / 롯데백화점 미아점 02,944,2855 / 롯데백화점 구리점 031,550,7750 / 롯데백화점 분당점 031,738,2851 / 롯데백화점 안양점 031,463,2695 / 롯데백화점 부평점 032,452,2609 / 롯데백화점 인천점 032,450,3868
롯데백화점 포항점 054,230,1892 / 롯데백화점 대구상인점 053,258,3654 / 롯데백화점 전주점 063,289,3544 / 롯데백화점 울산점 052,960,5295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630,6909 / 롯데백화점 부산광복점 051,678,3896 / 롯데백화점 노원점 02,950,2732
롯데백화점 대구역점 053,660,3722 / 갤러리아 백화점 WEST 02,3449,4204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597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1561 / 소잉팩토리 을지로점 02,2285,5979 / 소잉팩토리 신촌점 02,365,7843 / 소잉팩토리 강남점 02,3443,2732
소잉팩토리 서면점 051,804,0065 / 소잉팩토리 인천청라점 032,719,8008 / 소잉팩토리 대산동구점 042,719,7008 / 소잉팩토리 부천상동점 032,715,5240 / 소잉팩토리 제주노형점 064,805,7008 / 소잉팩토리 잠실점 02,2038,4690 / 소잉팩토리 김해점 055,321,6271
소잉팩토리 해운대점 051,746,3280 / 소잉팩토리 분당오리점 031,711,9008 / 소잉팩토리 방배사이길점 02,6951,5006 / 소잉팩토리 창동점 02,994,8882 / 소잉팩토리 인천석바위 032,424,6422 / 소잉팩토리 창원점 055,277,0760 / 소잉팩토리 광명점 02,2687,1435
소잉팩토리 대구중구점 053,523,2902 / 소잉팩토리 안양평촌점 031,457,1002 / 소잉팩토리 동대구점 053,742,0095 / 소잉팩토리 강서점 02,2692,4000 / 소잉팩토리 안동점 054,841,4800 / 소잉팩토리 수원점 031,238,8180 / 소잉팩토리 영등포점 02,2633,3812
소잉팩토리 일산점 031,905,0777 / 소잉팩토리 안산점 031,482,0233 / 소잉팩토리 통탄점 031,613,6678 / 소잉팩토리 천안마산점 031,613,6678 / 소잉팩토리 정유점 055,311,2884 / 소잉팩토리 청주가경점 043,232,1941 / 소잉팩토리 용인점 031,282,8185
소잉팩토리 진천점 043,537,9787 / 소잉팩토리 판교점 031,704,7147 / 소잉팩토리 구리점 031,569,2525 / 소잉팩토리 대구서부점 053,632,4262 / 소잉팩토리 구미점 054,441,8787



BREITLING

1884



AIR

LAND

SEA

NAVITIMER 1



NAVITIMER 1 B01 CHRONOGRAPH 46
MANUFACTURE CALIBER B01
CHRONOMETER-CERTIFIED

청담 부틱 02-3448-1230
롯데호텔 소공 부틱 02-3789-9017